

Nowhere GCF Nowhere Songdo

2012년 10월

송도, 세계를 품다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은 '환경부문의 세계은행'이라 일컫는 중요한 국제기구입니다.

GCF를 유치하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100배가 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GCF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저탄소 친환경도시인 송도국제도시는 GCF 사무국의 최적지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GCF 유치,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GCF 제2차 이사회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립니다.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2 10



06

GCF / What's GCF

Green Dreams become Green Reality

송도국제도시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에 도전장을 냈다. 우리는 소망한다, 그리고 믿는다. 송도국제도시에 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그날, 지구별 살리는 초록빛 꿈이 현실로 이뤄지리라는 것을.

10

GCF / Echo 송도

친환경 녹색도시 '물 모델'되다

송도는 처음부터 저탄소 녹색도시로 계획됐다. 송도의 친환경성은 넓은 공원면적, 쓰레기차 없는 도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으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녹색성장의 물 모델이 되고 있다.

24

GCF / Why Songdo

우리는 'GCF'를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GCF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도시, 국제공항과 국제항을 품은 교통의 요충지이자 국제 교육과 문화 등 외국 친화적 정주환경을 갖춘 송도국제도시로 GCF를 초대한다.



06



10



16



22



30

Contents

04 **Communication** '시정, 더 자세히 알고파' 外

06 What's GCF

10 Why Songdo

12 Echo 송도

16 Compact & Smart City 송도

20 I-Tower

22 송도 입주 UN기구

24 환경영화 '더 리플렉션'

26 Welcome Letters

30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 명월집

34 **아름다운 사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이건택

36 **Civic News** 'GCF 인천유치 국가적 홍보활동에 총력' 外

40 **Council News** '구재용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外

42 **Info box** '이정웅 사진전 수련' 外

48 **이달의 서평** '친절한 음악책' 外

49 **리크루트** 인천 고용정보

50 **건강칼럼** 눈의 중앙

51 **인천사는 이야기** '마사지집이 어데요?' 外

52 **Culture News** '커피콘서트Ⅷ' 外

56 **축제** 시월, 축제로 통하다

58 **모닝커피 한잔** 서혜란 인천국제교류센터

59 **인천풍경 플러스** 세상밖



Cover Story

10월 인천은 GCF 유치 열기로 뜨겁다. 송도국제도시의 친환경적인 면모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인천시민은 기대하고 희망한다. GCF 사무국을 유치해 초록빛 꿈을 현실로 이루길...

중앙공원 · 사진 김성환

굿모닝 인천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26 / 2012. 10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2년 10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허종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ou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twitter.com/youna1488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사진 자유사진가 김보섭 · 김성환 · 홍승훈 · 안영우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디자인 & 인쇄 성공디자인(주) T. 032.881.9441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과

'인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문의 T.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의 못 다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사의 취재 영상부터 뒷이야기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종이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 페이지 상단의 QR 코드 촬영

스마트폰인 경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인천미디어〉앱을,

태블릿 PC인 경우 〈굿모닝인천〉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

(사진 더 보기 기능은 태블릿 PC에서만 가능)



인천과 통(通) 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천시 대표 미디어와 SNS에서 우리 만나요.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heon.go.kr)

블로그 (blog.naver.com/flyic)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시정과 의정, 더 자세히 알고 파

〈굿모닝인천〉에서 시정뉴스와 의정뉴스를 더 많이 다뤄졌으면 합니다. 인천시와 의회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시의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시민으로서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또한 영유아 복지정책에 있어서 둘째아부터 혜택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보육시설에 맡길 때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_ 이지호 서구 연희동

자연을 보존하며 발전하는 도시

도시개발보다는 사람 그리고 자연이 먼저입니다. 인천시가 자연을 보존하면서 도시를 개발해 비전 있는 세계도시로 거듭나기를, 인천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 또 같은 의미로 GCF 사무국이 꼭 송도국제도시에 유치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굿모닝인천〉에서 발전하는 인천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세요.

_ 홍성수 남동구 논현동

한마음으로 송도국제도시를 응원

송도국제도시에서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네요. 스위스, 독일과 함께 3파전이 예상된다는 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대가 큼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접했는데, 주위를 보면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인천시민 서울시민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 한마음으로 송도국제도시를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인천 파이팅!

_ 이현아 서울시 강남구

스스로 꽃 피우는 아름다운 야생화

항상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알려주어서 고맙습니다. 매달 받아보는 〈굿모닝인천〉은 제 삶의 행복입니다. 이번호 역시 좋았는데, 특히 ‘인천의 야생화’를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야생화를 보고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 〈굿모닝인천〉을 통해서 야생화를 다시 보니, 참 곱고 예쁘네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꽃피우고 씨를 맺는 꽃. 이제는 야생화를 볼 때마다 그 그윽한 향기와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보려 합니다.

_ 강정희 서울시 노원구

인천의 단풍명소를 알려주세요~

〈굿모닝인천〉기사 가운데 인천의 부두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인천에 소래포구나 연안부두만 있는지 알았는데, 만석·화수·북성 부두도 있었네요. 언젠가 꼭 시간을 내서 가보고 싶습니다. 다음 호에는 단풍의 계절 가을에 걸맞게 단풍구경가기 좋은 인천의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으면 합니다. 가을 축제나 행사도 함께 알려주면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_ 김성철 서구 석남1동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인천

〈굿모닝인천〉9월호에서 ‘아이 함께 키우며 어른도 성장하는 가족 품앗이’ 기사를 유익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이웃간에 교류가 거의 없고 마음을 솔직히 터놓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니 훈훈한 정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인천시에서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많이 내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_ 이명자 부평구 백범로

싸이는 송도국제도시 팬?

인천에 사는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고 있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송도국제도시에서 촬영했다네요. 뿐만 아니라 싸이의 이전 뮤직비디오도 송도국제도시 거리에서 촬영했고요. 송도국제도시를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참 이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멋진 도시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국제기구 유치에도 앞장섰다는 데, 저도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_ 김민정 안산시 본오동

MTB와 함께라면 스치는 바람조차 자유

〈굿모닝인천〉기사 가운데 ‘MTB와 함께라면 스치는 바람조차 자유’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산으로 들로 나가기 좋은 계절. 두 바퀴에 몸을 맡기고 가을 안으로 달려가는 그네들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와 건강한 사람들의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독자로서 의견을 내자면 장애인분들이 더욱 나은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장애인 창업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면 어떨까요? 다음호도 잘 부탁드립니다.

_ 류정식 동구 화평동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동인천북광장 버스정거장 표시를 정확히 해주세요. 정거장이 두 개로 나뉘져 있어서 운전자와 승객이 이용하는 데 불편합니다.

동인천 북광장은 2개 버스정류소로 구분해 정류소별 버스안내도를 부착했으나, 페인트 낙서로 인한 훼손이 심각해 현재, 버스안내도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재발방지 및 대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버스알림판을 별도 제작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Bulloger 월미도에 왔는데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우물쭈물하고있는 데, 때마침 일본 여자 두 분이 기겁을 하고 나가더군요. 관광지의 더러운 화장실을 관리해주세요.

월미도 공중화장실은 전담인력을 배치해 2~3시간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지난 주말 많은 관광객들이 일시에 방문해 관리가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청결상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Bulloger 부평구 청천동 불법 개도축 현장 동영상을 봤습니다. 더 이상 동물보호단체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지적인 내용에 대해 인천시 및 부평구청 담당직원들이 현장 조사해 농장 3개소 중 2곳은 개 사육 및 도축을 중지한 상태이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부평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물학대행위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 이명순(당시 만 31세, 여)
발생일자 2000년 8월 29일(화)
발생장소 강화군 갑곶리
신체특징 정신장애, 말이 어눌한 편, 반복 입퇴원 상태였음
제보처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글. 정경숙_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GREEN DREAMS 글. 정경숙_본지 편집

BECOME GREEN REALITY

GCF는 초록별 지구는 지금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에너지자원은 메말라간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은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듯 전 지구적 인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총괄하는 기구가 바로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이다.

GCF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UN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중심으로 만든 기후변화 특화기금. 내년 사무국을 출범해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 총 8천억달러(904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8천450억 달러에 버금가는 규모로, GCF의 위상은 세계은행(WB) 및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환경 부문의 '세계은행' GCF를 유치하기 위해, 계획된 저탄소 녹색도시 송도국제도시가 세계에 당당히 도전장을 냈다.

GCF 효과 GCF 사무국을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변화 재정·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GCF를 한국에 유치할 경우 평창동계 올림픽 유치 100배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120회 이상 열리는 GCF 관련 각종 회의에 따른 컨벤션 산업 발전과 외국인투자 촉진, 녹색기술산업 발전 등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사무국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송도에 근무하는 상주 직원 규모가 초기 300~500명에서 8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발전연구원(IDI)은 GCF 사무국을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약 1천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는 이런 기대감을 한 단계 뛰어 넘는다. KDI는 GCF 사무국을 유치할 경우, 총 소비지출과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 효과까지 포함하는 기대 파급효과를 연 3천812억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향후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GCF.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GCF 사무국 유치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올 3월 송도국제도시를 국내 유치도시로 선정했다.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이사회와 UN 기후변화협약 각료회의를 거쳐,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리는 제2차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다. GCF 사무국 유치국가는 이번 제2차 이사회에서 선정해, 다음달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UNFCCC)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 인준할 예정이다.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비아 등 5개국과 유치경쟁에 나선 우리나라는 독일, 스위스와 함께 3파전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는 소망한다. 송도국제도시에 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그날, 지구별 살리는 초록빛 꿈이 현실로 이뤄지기를...

Q&A로 알아보는 GCF

Q1. 녹색기후기금(GCF)이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특화 기금으로, 향후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Q2. GCF 사무국 유치 기대효과

연 3천81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과 인천의 국제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상승시키고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Q3. GCF 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해 어느 나라와 경쟁하나?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비아 등 6개국이 유치를 신청했으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독일, 스위스간의 경쟁으로 볼 수 있다.

Q4. 그렇다면 송도의 경쟁력은?

저탄소 친환경 녹색도시 송도는, 국제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있고, 국제회의·교육·의료·숙박·교통 등 최적의 근무여건과 정주환경 완비하고 있다. 또 GCF 사무국이 입주할 국제기구 전용 빌딩 I-Tower를 내년 2월에 준공한다.

Q5. GCF 사무국 유치국가는 언제 결정하나?

제2차 이사회(12.10.18~20,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선정. UN 기후변화협약(UNFCCC) 제18차 당사국총회(12.11.26~12.7, 카타르 도하)에서 인준할 예정이다.



우리는 ‘GCF’를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GCF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기획 단계부터 유비쿼터스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도시, 국제공항과 국제항을 품은 교통의 요충지이자 국제 교육과 문화 등 외국 친화적 정주환경을 갖춘 Compact & Smart City, 송도국제도시로 GCF를 초대한다.

글. 정경숙_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인천시는 급속한 기후변화에서 오는 환경 문제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모범 안으로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 과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자연 자원을 보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앞장 서고 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는 GCF의 설립목적과 정확히 일치한다. 계획 단계부터 저탄소 녹색도시로 설계돼 대한민국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을 만들어 왔다.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배출전망치(BAU)대비 38%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또 전체 면적의 32%가 녹지로 지정돼 있고, 송도컨벤시아와 같은 주요 건물들이 LEED(에너지 및 환경디자인 리더십) 인증을 받았다. 또 하수 재활용 시스템과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구축해 하수의 40%와 폐기물의 70% 이상을 재사용하고 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는 최첨단 비즈니스 공간과 문화·레저 공간, 푸른 녹지가 어우러진 이상적인 미래도시다. 송도국제도시는 수도권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국제공항과 국제항을 품은 교통의 요충지. 전 세계 182개 도시 노선을 연결하는 인천국제공항과 불과 20분 거리에 있으며,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포함한 광범위한 국내의 교통망으로 다른 지역과 잘 연결돼 있다.

교육·의료·숙박·MICE·공원 등의 인프라도 완비하고 있다. 1만4천개의 주택이

사무실 가까이 있으며, 송도국제도시 내 글로벌대학캠퍼스와 국제학교를 비롯해 수도권 내에 국제학교 16개교와 대학 캠퍼스 50개가 자리 잡고 있다. 또 72개에 이르는 인근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풍부한 레저시설과 문화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내년 2월에 완공을 앞둔 국제기구 전용빌딩 I-Tower는 친환경인증 최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의 건물로 UN ESCAP, UN APCICT, UN ISDR 등 10여 개의 국제기구와 더불어 GCF 사무국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Point

UNFCCC가 추구하는 저탄소·친환경 모범도시
 • ‘20년 하수 재이용률 40%, 폐기물 재활용률 76.3% 달성, 미국 친환경건축(LEED) 인증, 국내 최대 녹지율(32%) 확보 등

최적의 근무여건 및 정주환경을 완비한 Compact & Smart City
 • 국제학교, 글로벌대학캠퍼스, 송도컨벤시아, NEATT 등 위치

국제기구 입지에 적합한 접근성, 안정성 확보
 • 인천국제공항에서 20분, 서울 강남에서 40분 소요
 • 독립된 섬 형태로 조성된 신도시로 경호·안정성 확보

국제 기구 전용빌딩 I-Tower 내년 2월 완공
 • 지하 2층, 지상 33층건물, GCF에 I-Tower 15개층(2만1천500㎡) 무상임대, 사무실 기자재·장비 지원

UNESCO, UNAPICT, UNISDR 등 10개 국제기구 입주




친환경 녹색도시 ‘롤 모델’되다

(Role Model)

송도국제도시는 그야말로 환경도시로 불릴만하다. 송도국제도시는 처음부터 저탄소 녹색도시로 계획됐다. 도시 에너지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탄소 대신 청정, 클린자원을 사용해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도시로 나래를 펼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친환경성은 넓은 공원면적, 쓰레기차 없는 도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으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녹색성장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글. 이용남_본지 편집위원 사진. 안영우_자유사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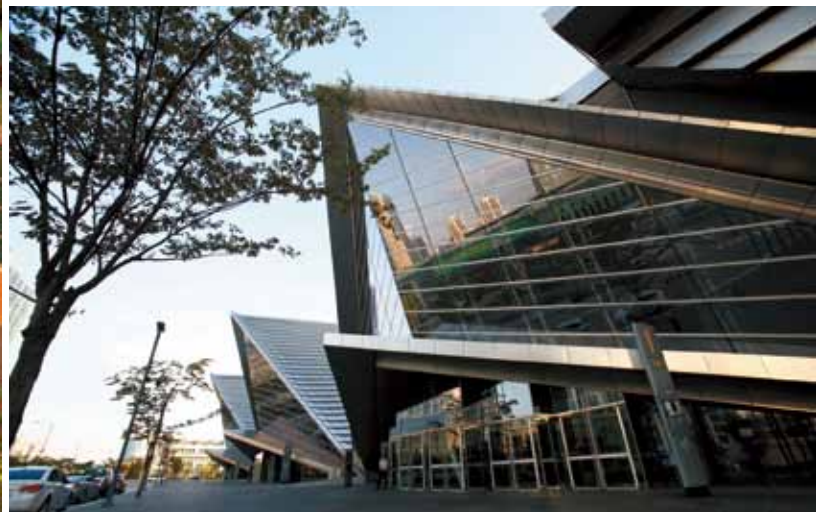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물, 쓰레기 등 자원은 ‘리사이클링’

송도국제도시는 쓰레기차가 없는 도시로 유명하다.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구축해 클린도시, 청결한 도시의 면모를 보여준다. 송도국제도시의 쓰레기처리는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에 설치된 자동집하시설에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투입하면 자동으로 각 구역의 집하시설로 옮겨져 처리된다. 쓰레기처리로 얻어진 폐열은 건물 등에 재활용된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로 다른 도시와 달리 쓰레기통으로 인한 악취나 불결한 풍경을 볼 수 없다. 송도국제도시의 폐기물 재활용은 76.3%에 달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환경도시, 탄소순환 도시답게 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2020년까지 하수 재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번 사용한 물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처리하여 화장실, 공원, 청소용수로 재이용한다. 공동주택, 업무용 빌딩의 청소나 화장실물로, 센트럴·해돋이공원의 친수용수로, 자원화 시설의 공업용수로 유용하게 쓰인다. 재처리되는 물은 총 하수량의 10% 정도다. 물을 재활용해 거둬들이는 효과는 연간 441억원의 상수도 비용이다. 연간 탄소배출량도 2만6천5백톤의 저감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LEED 인증받은 송도컨벤시아



송도 더샵 1 아파트 3층에 조성된 정원

넓은 공원, 풍부한 녹지로 쾌적한 ‘환경프렌들리’

송도국제도시의 녹지와 공원 규모는 타 도시와 비교해 남부럽지 않다. 이미 독특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센트럴파크, 미추홀공원, 해돋이공원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2013년에도 시민에게 다가가는 예쁜 공원들이 송도에 속속 들어선다.

송도국제도시의 녹지율은 32%로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1인당 공원면적도 약 29.9%로 분당 27%, 일산 23%에 비해 훨씬 높다.

송도는 바다와 맞닿아 있고 호수, 강, 하천을 연결하는 워터프런트 자원이 풍부하다. 워터프런트 공간은 도심을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고 열섬 방지 효과로 저탄소 도시건설에 일익을 담당한다.

송도국제도시의 대표적인 워터프런트 공간은 센트럴파크 내 호수공원이다. 이 인공수로는 바닷물을 끌어들이어 조성했고 세계에서든 흔치 않은 사례다. 송도 6,8공구 내에 조성된 해양호수는 바다를 막아 만들어 센트럴파크보다 1.5배나 크다. 송도에 조성된 수변공간은 열섬현상과 탄소를 상쇄시키기에 충분하다. 도시의 열섬 억제에는 물론 여름철 전기사용량이 10% 가량 줄이는 효과를 보인다. 또한 에어컨, 선풍기 등의 냉방기구를 덜 사용함에 따라 탄소 배출량도 1만4천톤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물 옥상이나 외부에 심은 나무나 꽃도 건물의 에너지 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 공원, 녹지 공간이 송도를 환경프렌들리 도시로 만든다.

풍력, 태양광, 지열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송도국제도시에는 청정에너지를 활용하는 건축물이 많다. 태양광, 풍력, 지열 시스템으로 건축물을 유지하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탄소제로에 도전한다. 송도에 짓는 민간, 공공건축물의 경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공공 42개소, 민간 33개소 등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고, 미국 그린빌딩협회가 자연친화적인 빌딩과 건축물에 주는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인증 건물만도 송도컨벤시아, 채드워 국제학교, 쉼라톤, 더샵 센트럴파크, IBS건물 등 9개소에 달한다. 연세대 송도캠퍼스의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친환경기술 110여 종이 적용된 복합그린빌딩으로 건축되어 친환경 건축물이 되기 위한 모든 요소를 갖췄다. 송도 프라우 2차 아파트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로 아파트에 지열시스템을 도입, 아파트 냉난방에 지열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지열에너지로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20~40% 정도의 관리비를 아끼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태양열 집열판 설치로 얻어진 전열을 지하주차장 및 가로등의 전력에 쓰이며 아파트 1개 단지당 연간 탄소배출량은 371톤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송도는 가로등과 보안등도 LED로 바꾸고 있다. 2013년부터 신규설치 가로등의 30% 이상을 수명이 길고 전기소모량이 적은 LED로 교체할 계획이다. 송도 해송고등학교와 웰카운티 부근은 나트륨 등에서 LED로 48개 가로등을 바꿨고, 송도 연세대학교 주변 보안등도 LED교체했다. 더 밝으면서도 전기소모량을 줄인 친환경 전열기구 설치가 점점 늘고 있다.



명선초등학교 태양열 집열판



컴퓨터로 쓰레기 자동화 집하시설에 보내진 쓰레기 처리과정을 보고 있다



오라, 매력 넘치는 송도국제도시로

송도국제도시시는 현재 1천900명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활기 넘치는 국제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UN ESCAP, UN APCICT, UN ISDR 등 10여 개의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기도 하다. 국제공항과 국제항을 품은 교통의 요충지이자 외국 친화적 정주환경을 갖춘 Compact & Smart City, 살고 일하고 즐기 좋은 송도국제도시시는 GCF 사무국의 보금자리로 최적지다.

글. 정경숙_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송영길 시장은 지난달 26일 GCF 이사국과 대 라이사국 17개국 주한대사를 초청, 센트럴파크 수상택시를 타고 송도국제도시 등을 둘러보며 GCF사무국 인천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Feature 1. 접근성

하늘과 바다, 거대한 땅을 넘나들며 세계와 미래를 향해 뻗어가는 국제도시. 인천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국제항을 품은 교통의 요충지로, 국제기구가 들어서기에 적합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시는 전 세계 182개 도시와 직항으로 연결되는 인천국제공항과 20분 거리에 있다. 또 수도 서울과 28km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강남까지 차로 불과 40분 걸린다. 연계 교통수단이 발달해 교통도 편리하다. 고속철도, 전철, 고속도로를 포함한 광범위한 국내 교통망으로 다른 지역과 잘 연결돼 있다.

Feature 2. 주거 환경

송도국제도시시는 최적의 정주환경이 완비된 Compact & Smart City다. 한국뉴욕주립대를 비롯해 해외 유명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를 한 캠퍼스에 모아 놓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채드워 국제학교, 인근 청라국제도시의 외국인학교 달튼스쿨 등이 교육을 책임진다. 또 72개에 이르는 인근 병원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커널워크를 비롯해 송도국제도시에 즐비한 쇼핑몰과 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오감을 만족시킨다. 오는 2015년에는 송도국제도시에 백화점, 멀티플렉스 영화관, 아이스링크 등 다양한 매장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문쇼핑몰이 들어선다.

Feature 3. 비즈니스 환경

송도국제도시시는 최고의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환경을 갖추고 탁월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 수도권권에 위치하고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춘 송도국제도시시는 성숙한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세계를 향해 품을 활짝 열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송도국제도시시에 신뢰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삼성, 롯데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글로벌기업들의



1 인천항 2 인천국제공항 3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





5 트라이볼 6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7 카널워크 8 센트럴파크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접근성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MICE 산업도 발전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을 갖춘 컨벤션센터인 송도컨벤시아를 비롯해 웨라톤, 송도파크호텔 등 특급호텔들이 국제기구 직원들과 국제회의 차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Feature 4. 문화·레저 공간

세계적인 첨단 미래도시인 송도국제도시 곳곳에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다. 트라이볼(Tri-Bowl)은 영상·설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 아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역셀(易 shell)’ 구조로 지어진 세계 최초의 건축물로, 물 위에 세 개의 사발이 떠있 듯 독특한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이와 함께 송도국제도시에는 최첨단 유비쿼터스 미래도시 체험관인 투머로우시티, 인천의 과거와 미래를 담은 컴팩·스마트시티 전시관 등이 있다. 오는 2014년에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 버금가는 공연장 인천아트센터가 문을 연다. 스포츠·레저 공간도 충분하다.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바다가 보이는 필드에서 시원하게 샷을 날릴 수 있고, 송도 가까이 있는 유럽식 축구전용구장에서 박진감 넘치는 축구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다.

Feature 5. 자연

녹지율 32%에 빛나는 송도국제도시. 당신이 지금 발 디딘 그곳에도, 자연은 푸르게 드리워져 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모티브로 한 송도센트럴파크는 열심히 일하는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쉼터다. 이 공원의 가장 돋보이는 요소는 바닷물을 끌어들이어 만든 수로로, 그 길 따라 수상택시와 카누가 유유히 흐른다. 해돋이·미추홀·새아침·신송·달빛공원으로 이뤄진 송도중앙공원도 센트럴파크와 함께 송도국제도시의 숨통을 트는 허파 역할을 한다. 한국의 전통문화·생태·스포츠 등 다양한 테마로 조성해 즐거움을 더 한다. 또한 인천은 150여 개의 섬을 품은 바다의 도시. 발걸음을 조금만 더 하면 푸르게 넘실거리는 바다와 반짝이는 해변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

Feature 6. I-Tower

바다가 흐르는 송도센트럴파크를 바라보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국제기구 전용빌딩인 I-Tower는 내년 2월 송도국제도시 송도센트럴파크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I-Tower는 연면적 8만5천942㎡에 지하 2층, 지상 33층의 규모로 친환경인증 최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았다. I-Tower는 UN ESCAP, UN APCICT, UN ISDR 등 10여 개의 국제기구와 더불어 GCF 사무국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인천시는 GCF 사무국에 I-Tower 15개층(2만1천500㎡)을 무상임대하고 사무실 기자재·장비 등을 지원한다.

Feature 7. 정부와 국민의 지지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GCF 유치를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 인천시장을 비롯해 정·재계, 학계 등 총 123명으로 구성된 ‘GCF 인천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킨 인천시는 실무추진단과 환경정비추진단을 가동 중이다. 정부와 호흡을 맞춰 친환경도시 송도의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 자전기 대축제’를 열어 GCF 사무국 유치를 염원하고 저탄소 녹색상장의 모범도시 송도국제도시를 홍보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구의 미래를 밝게 할 GCF의 힘찬 발걸음에 동참할 준비를 마쳤다.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해 제안합니다

법적제도

- GCF의 법인격과 법인능력, 특권과 면책권 부여
- GCF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세금감면 등 법적 구성요건 구비

사무공간 및 회의시설 지원

- 사무국 사무실 2만1천500㎡(500명 기준) 무료임대
- 시설물의 주요 유지보수와 무상수리 제공(연 6백만불 상당)
- 필요 시 지방정부와 협의해 최대 8천500㎡까지 추가 공간 제공
- 행정 사무장비 140만불 초기 제공
- I-Tower의 434석 강당과 104,124석 2개 회의실 무료사용 가능
- I-Tower 내에서 회의실 무료로 사용
- 세계적 수준의 컨퍼런스센터인 송도컨벤시아 매년 20일간 무료 사용(연 50만불 상당)

숙련된 인력의 가용성

- UN 공식 언어에 능통한 번역사와 통역사를 포함한 일정수준의 자격과 실력을 갖춘 인적자원의 안정적 공급
- 필요한 경우 최대 20명의 지방정부 직원 파견, 현장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종합 환경 지원

- GCF 직원의 대중교통, 문화 및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할인(연간 약 30만불 상당)
- 한국어·관습·국내법을 배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의료보험 가입
- 운전면허증 획득을 위한 행정적 지원 제공
- GCF 직원 주택임대 또는 구입지원을 위한 부동산 에이전시 지정
- 신속한 상황 지원을 위한 전용 핫라인 제공

교육 지원

- GCF 직원 자녀 국제학교 입학특례 및 장학금 기회 제공

재정 지원

- GCF 출범을 위해 2012년 2백만불의 초기재정 지원
- GCF 유치 시 2019년까지 매년 1백만불 제공
- 신규 및 추가재원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천만불 지원(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도상국가의 능력 구축)
- 재정지원 운용 세부사항은 GCF와 협의를 통해 결정

GCF사무국 500명의 ‘꿈의 일터’



세계 환경부문의 ‘월드뱅크’라 할 수 있는 GCF의 사무국 유치에 위한 인천 전략과 지원은 타 경쟁국과 비교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인천은 GCF 사무국을 유치하고자 I-Tower 건물 15개층 무상 대여, 기금 4백만불 지원, 회의진행을 위한 공간인 컨벤시아 20일 이상 무상제공, 2019년까지 연 100만달러 운영비 지원 등 굵직한 공약을 세계에 내세웠다. 공약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송도국제도시에 짓고 있는 최첨단 친환경 건물인 I-Tower 15개층 이상을 무상대여하는 것이다. 지난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GCF이사회에서도 I-Tower의 사무실 무상대여가 GCF관계자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전언도 있다.

글. 이용남_본지 편집위원 사진. 홍승훈_자유사진가



전국 지자체 건물 중 최고낮은 에너지효율 기록

송도 ‘I-Tower’는 송도동 24-4구역에 짓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3층 규모로 내년 2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 건물의 첨단 및 친환경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건축물은 이미 5개 분야에서 건축물 성능 최고등급을 받았다.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예비인증, 지능형건축물(IBS)1등급 예비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예비인증,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최우수등급 예비인증 등이다.

I-Tower는 설계와 건축에 환경과 자연을 충분히 녹였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태양열 급탕과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을 적용해 전기사용으로 발생하는 탄소량을 줄였다. 건물 내에 생물서식 공간을 조성하고 수경공간, 옥상녹화, 수생바이오톱을 만들어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등급 청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계에서도 친환경 기법을 최대한 강조했다. 폐열회수 활용, LED조명 사용, 건물의 콤팩트한 정방형 남향배치, 단열성능 30% 이상 강화된 자재사용 등으로 에너지 저감을 실천했다.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 정책은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222kWh/㎡년 규모로 나타나 전국 지자체 건물중 최고낮은 에너지를 효율을 기록했다.

국제기구 전용빌딩으로 불려

국제규모의 첨단 친환경 건물인 ‘I-Tower’는 GCF 사무국을 비롯해 UN기구들도 입주할 예정이어서 그야말로 국제기구 전용 빌딩이라 불릴 만 하다.

I-Tower 건물에 들어올 기관들로는 현재 UN APCICT(유엔 아·태경보통신교육센터), UN ISDR(유엔국제재해경감기구) 동북아시아사무소 및 도시방재연수원, UN ESCAP(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 동북아시아사무소, UN기탁도서관, EAAF(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등 6개 국제기구의 입주가 확정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이곳으로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I-Tower에는 송도거주 외국인들의 모임인 글로벌서비스센터, 레스토랑, 홍보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I-Tower에 GCF사무국과 UN기구들이 들어와 인천의 브랜드가치 상승과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적 면모가 한층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



국제도시로 ‘세계를 품다’

글. 이웅남_본지 편집위원 사진. 홍승훈_자유사진가



“송도국제도시는 새로운 개념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도 친절하고, 공원도 많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UN ISDR 글렌 돌체마스콜로 대표의 송도에 대한 생각이다.

송도에는 10여 개의 UN과 국제기구가 활동하고 있다. 유럽의 UN도시들에 비해 아직은 규모가 약하지만 GCF사무국을 유치하면 첫째 500여 명의 직원들이 송도에 들어와 생활하고 2020년에는 8천여 명까지 늘어 송도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거듭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도국제도시에 첫 등지를 뜬 UN기구는 UN APCICT(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 UN ESCAP 산하 62개 회원국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활동하는 기구다. 2006년 6월 16일 오픈했다. 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는 현재 송도에 있는 UN기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산하 62개 회원국간 경제, 사회, 환경 개발 협력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UN ESCAP동북아사무소의 회원국으로는 대한민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이 있고 유엔총회가 결의한 대한민국 최초의 UN기구다.

UN ISDR 방재연수원과 사무소에는 모두 13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이 기구는 장기적으로 세계적 방재 전략 및 재해에 견딜 수 있는 국제적 시스템을 구축해 UN, 각국정부, 학계, 연구소, NGO 등과 긴밀하



게 협력한다. 각종 정보교환, 세계 방재보고서 발간, 국가 대표자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재해로부터 세계인을 지킨다.

UN CITRAL 아태지역사무소는 관련 아시아 각국 정부에 대해 협약비준, 입법초안을 작성하고 실무자들의 능력을 높이는 다양한 지원과 UN CITRAL 규범을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올해 연세대 송도캠퍼스에 입주한 UNSOD(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United N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에서 연구 교육역할을 담당한다. 개발도상국들이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환경보호 등 세 가지 요소를 통합해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슬람 차우드리 UN SOD 센터장은 “송도국제도시는 친환경적인 그린시티, 녹색도시로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고 자신의 친구들도 이곳의 삶을 다 만족스러워 한다”고 말한다. 또 그는 GCF가 인천에 유치되면 환경부문에서 UN SOD와 협력하고 같이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송도에는 EAAFP사무국(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십 사무국), NEASPEC사무국(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 UN기탁도서관, AFOB사무국(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등의 국제기구 사무국이 활동을 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새롭게 꾸며지고 조성되는 도시다. UN관계자들은 그런 면에서 송도국제도시가 GCF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송도에 GCF가 유치되면 국제기구간 상호 협력과 공동프로젝트 모색으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 방콕, 본에 못지 않은 국제도시로 이름값 할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단편영화 속 장편송도

40분짜리 단편영화 한 편에 송도국제도시를 잔잔하게 담았다. '더 리플렉션(The reflection)'은 지난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리우+20정상회의(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와 오는 10월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리는 녹색기후기금(GCF) 이사국 2차 회의를 겨냥한 일종의 프로젝트 필름이다.

글. 유동현_본지 편집장 사진. 메이드인 제공

'더 리플렉션'은 챗바퀴 돌 듯 반복되는 일상에서 매너리즘에 빠진 환경박사와 사진작가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영화다. '피아노 레슨', '좋은 배우', '페어리브' 등을 연출한 젊은 실력과 감독 신연식이 메가폰을 잡고 이세은과 정겨운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극중 이세은은 환경법을 전공한 박사 헬렌 역을, 정겨운은 사진작가 자운 역을 맡았다. 지난 4월 초 송도센트럴파크, 오션스코프, 송도브릿지호텔 등 송도국제도시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했다. 아름다운 풍광과 더불어 이세은, 정겨운 두 배우의 감성 연기가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뉴욕에서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스타 사진작가 자운. 생계를 위해 스타작가라는 타이틀에 얽매어 자신이 원

하는 작품세계를 잃어버린 것이 늘 아쉬운 자운은 선배의 권유로 송도국제도시에서 프로젝트 사진을 찍기로 한다. 한국으로 돌아온 자운은 오자마자 송도에 사는 환경운동가 삼촌을 만나게 되고, 함께 나온 헬렌을 소개 받는다. 녹색성장위원회 연구원 헬렌은 삼촌의 부탁으로 자운의 송도 가이드를 맡지만 예상치 못한 등장인물에 자운은 불편해지고 첫 만남부터 둘은 삐걱거린다. 결국 도중에 혼자 숙소로 오는 헬렌. 화가 난 자운은 헬렌을 찾아가 따지지만 헬렌 또한 만만치 않다.

적적함에 혼자 술을 마시러 나온 자운. 같은 마음으로 혼자 호텔 바를 찾은 헬렌과 합석하면서 낮에 있었던 오해를 풀게 되고 술 한잔에 둘은 조금씩 가까워진다. 자운은 헬렌에게 다시 가이드를 부탁한다. 자연과 도심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있는 송도국제도시. 헬렌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애착으로 지금껏 자신이 기피해오던 풍경사진들을 찍으면서 점점 송도국제도시와 헬렌에게 빠지게 되는 자운. 그날 밤 자신이 찍은 풍경사진들을 보며 잠 못 이루는 자운. 창문 너머 아름다운 아침 햇살에 비친 송도국제도시의 풍경이 보인다.

이세은은 "국제행사에서 상영될 영화라고 하니 더욱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들었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다. 세련되고 아름다운 송도국제도시 촬영장 분위기도 무척 좋았고,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다"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제작사는 "이세은과 정겨운 모두 평소 이미지가 깨끗하고 매력적인 배우들로 이번 작품의 분위기와 성격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둘의 호흡도 좋았고 각국 대표들 앞에서 상영될 이번 영화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손색없는 연기를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We ♥ GCF!

We ♥ New Songdo City!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1천900명이 넘는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활력 넘치는 국제도시다. 살고, 일하고,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도시. 우리는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금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GCF 사무국 유치를 지지하는 인천시민과 관계자들의 환영 메시지.

정리. 정경숙_본지 편집위원 사진. 안영우_자유사진가, 월픽처스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상상을 넘어선 놀라운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기획단계에서부터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유비쿼터스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도시, 송도국제도시가 바로 그곳입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국제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과 관광·레저, IT·BT 산업을 발전시키며 대한민국 나아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면서도 자연 자원을 보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미래형 도시. 교통과 물류, 첨단산업과 교육·문화의 다양한 인프라가 완비된 국제도시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그동안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GCF 사무국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할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미래가 있는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도시입니다. GCF와 함께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송영길

국제 기구의 동지로 최적

유엔은 동북아시아무소를 송도국제도시에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무국을 준비하는 것은 인천시와 한국 정부의 협조로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저희 사무국은 6개 국가와 일하며, 직원들은 10개의 각각 다른 국가에서 왔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족들도 여기에 와서 삽니다. 우리는 유엔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든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열심히 일하는 한국 현지 직원들이 우리의 업무를 보조하고, 세계 곳곳에 있는 고객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는 비디오 회의시설이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화적, 교육적 기회가 많으며 환상적인 공공 이동수단이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행복합니다. 또 인천공항은 꿈의 공항입니다.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가야 할 곳에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막 도쿄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UN ESCAP 동북아시아무소 대표, 킬라파르티 라마크리쉬나(Kilaparti Ramakrishna)



한국이 이끄는 개발도상국 간 협력 기대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녹색기후기금 유치에 나서서 기쁩니다. 한국에 1년 정도 살면서 역동적이고 모험 가득한 사회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 그 가운데 개발도상국에서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60년 발전사는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이 이끌어내는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은 녹색기후기금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녹색기후기금 유치 신청을 환영하며 이사회가 한국을 선정하길 바랍니다.

GGGI 행정디렉터, 알렉산더 피셔(Fisher Alexander)

늘 새로운 즐거움이 샘솟는 도시

송도국제도시는 매우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우리 가족은 지난 2년 동안 이곳에서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을 위한 행사가 있는 컨벤션센터와 음식점이 있고, 늘 새로운 솜이 생겨납니다. 또 이곳에는 저의 세 아들이 다니는 훌륭한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후와 방과 후 또 주말에 다른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좋은 추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채드워 국제학교 초등학교 교감, 재퀴 카메론(Jacqui Cameron)



최고의 시설 갖춘 최고의 학교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채드워 국제학교는 다양한 사람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있는 멋진 곳입니다. 이곳은 축구장, 농구장, 암벽, 스튜디오,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훌륭합니다. 학교에서 저는 책을 읽고 싶으면 도서관으로 가면 되고, 연기수업을 듣고 싶으면 드라마 교실에 가면 됩니다. 제 하루를 말하자면, 음악시간에 기타를 치고, 홈룸(Homeroom) 시간에는 노트북을 사용하며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채드워 국제학교 5학년 학생, 레이스 카메론(RaceCameron)

GCF를 위한 최적의 도시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참여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송도는 세계적인 수준의 업무 및 정주 환경을 갖춘 국제도시로 한 단계 나아가고 있으며, 이제 GCF 사무국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도는 저탄소 배출을 지향하는 친환경 도시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잘 정비하고 쓰레기집하시스템을 적용해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송도 내 주요 빌딩들은 세계적인 친환경인증 LEED 인증을 받았으며, 특히 게일 인터내셔널 코리아에서 개발하고 있는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최종적으로 개발 프로젝트 전체의 친환경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있어 세계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이제 송도국제도시는 GCF 사무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사회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GCF를 위한 최적의 도시 송도가 선정되기를 기원합니다.

게일 인터내셔널 코리아 회장, 스탠 게일(Stan Gale)



가족이 살기 아주 적합한 도시

하나의 도시를 계획하고 실제로 그 도시에서 살게되어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어린 아이들이 자라기에 아주 좋습니다. 제게는 어린 아들 두 명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은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학교 가운데 하나인 채드워 국제학교에 다닙니다. 선생님들도 아주 훌륭합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살아가기도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바다가 옆에 있으며 공기가 신선하고, 공원이 많아 가족 단위로 살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채드워 국제학교 학부모, 레스토랑 '왓츠 데이비스' 대표, 데이비드 무어(David Moore)

GCF 최고의 파트너, 송도

저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온 지 3년 8개월 됐습니다. 한국인 남편 그리고 3살 된 딸 아이와 함께 인천에서 살고 있지요. 송도국제도시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글로벌서비스센터는 송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편의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의 도시 인천은 관광·레저가 발달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습니다. 송도국제 GCF 사무국이 유치되면 최고의 파트너십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송도 글로벌서비스센터 직원, 로셀린 메네스(Locelyn Menes)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나는 진심으로 송도국제도시가 매우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회 단체들이 많아서, 일본에서 온 저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온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편리합니다. 제가 다니는 채드워 국제학교도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좋고 친구들도 다 착합니다. 시설도 좋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수영장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송도국제도시 그리고 이 학교가 정말 좋습니다.

채드워 국제학교 8학년 학생, 류 미치카와(RyuMichikawa)

최적의 환경 갖춘 U-City

저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대 건설환경공학과 환경수리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스리랑카에서 인천으로 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지요. 처음 송도국제도시에 왔을 때를 생각하면 비약적인 발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유비쿼터스 도시로 주거·업무·교육·문화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 등 교통이 매우 발달해 있고, 해돋이공원과 송도센트럴파크 등 공원과 수로를 잘 조성해 놓았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GCF 사무국의 보금자리로 최적지입니다.

인천대 건설환경공학과 박사과정, 자키르(Sged Zakir Honein)



깨끗하고, 안전하며, 푸른 도시

두 달 전에 베트남에서 송도국제도시로 왔습니다. 세계의 다른 도시들을 가보았지만 이처럼 좋은 도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송도는 매우 깨끗하고 안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건물들은 현대적이고 새롭습니다. 또 공원과 녹지가 곳곳에 푸르게 조성돼 있습니다. 이곳은 가족, 친구들과 지내기 매우 좋은 도시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 호티홍부(Hau Thi Hong Vu)

최적의 비즈니스·주거 환경

뉴질랜드에서 한 달 전에 송도국제도시로 왔습니다. 아내는 국제학교의 교사이며 우리에게는 12살, 14살 된 자녀가 있습니다. 송도는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건물들이 많고 그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도 쉽습니다. 또한 교통이 잘 발달해 있어 생활하기 편리합니다. 인천시민이 외국어를 잘 구사해서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글로벌서비스센터에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 한국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 데이비드 해너건(David Hannagan)



올해로 10년, 국제비즈니스 도시로 도약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세워진 지 올해로 꼭 십년이 되었습니다. 허허벌판에서 시작한 IFEZ는 이제 사람들로 북적이는 국제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후보지(GCF)로 송도가 선전하는 것은, 저탄소·친환경 도시이자 대규모 국제기구 입지에 적합한 송도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송도국제도시는 국내 최대의 녹지율과 국제학교·글로벌대학캠퍼스 등 뛰어난 교육시설, 아트센터·컨벤시아·골프장 등 외국인들을 위한 편리한 주거환경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또 세계 모든 국가에서 접근하기 편리하며 안전합니다. 특히 국제기구 전용빌딩인 I-Tower는 내년 2월에 지하 2층, 지상 33층 규모로 완공돼 GCF 사무국의 사무실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이곳 송도국제도시에서 GCF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 이종철



푸짐하고 인심좋은 김치찌개백반 50년

명월집 주소는 중구 중앙동 3가 46번지, 새 도로명으로는 신포로 23번 길 41호인데, 한국마사회 실내 경마장이 들어 있는 크고 웅장한 중앙플라자 건물이 바로 옆에 있어서 초행이라도 찾기가 수월하다. 또 신포로는 넓지 않은 옛날 시가지 길인 데다가 통행인의 왕래도 많지 않아 찬찬히 간판만 살펴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흰 바탕에 ‘명월집’이라고 춤추는 듯, 흥겨운 듯 흘러 쓴 간판 글씨가 특이해서 쉽게 눈에 들어온다. 옛 그제까지만 해도 간판이 좀 어두운 느낌이었는데 글씨도 쓰고 디자인도 하는 작가가 밥맛에 빠져 썼다고 한다.

글. 김윤식_시인 사진. 김보철_자유사진가



▲ 현재 명월집을 이끌고 있는 남영심 사장

손님에 대한 무사공평, 넉넉한 음식 인심

인천 토박이들, 특히 중구 토박이들에게는 명월집은 어찌다 생각나면 가끔씩 가서 백반 한 상을 받는 평범한 밥집에 불과했는데, 얼마 전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에 선정되어 전국의 대표적인 100군데 식당, 밥집들과 함께 나란히 책자에까지 실린 것을 보고는 “어!” 하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또 한 부류, 그 옛날 인천시청 공무원이나 경찰국, 언론사, 각종 선사, 해운사, 그리고 경기도행 본점 등 여러 금융기관과 인천상공회의소, 부두노조 등에 몸담고 있었던 이들도 그 비슷한 감회가 아니었을까 싶다. 명월집 일대가 인천 최대의 밥집 거리, 술집 거리였기 때문에, 일상 드나들던 한 군데 밥집으로 평소 다른 의미를 두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명월집이 오늘 전국의 100군데, 맛과 소문을 지닌 전통의 식당, 밥집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것은 창업 50년 동안 자신의 원칙과 특색을 깨지 않은 한결같은 ‘백반집 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백반집 정신이라는 말이 좀 과장스러울지 모르나 그 비슷한 것이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 책자에 실려 있다. 물론 거창한 내용은 아니다. 지극히 소박하면서 단 순해서 어찌면 어느 백반집에서나 다 익히 숙지하고 있을 기본적인 태도이기도 할 터이다.

“절대 직업이고 이름이고 묻지 말 것. 다 똑같은 밥 손님이야. 백반 한 끼 먹고 가는 손님 직업 알면 뭐하며, 이름 알면 무엇 하나? 그런 것 아는 순간 주인도 손님도 피차 불편하고 걸끄러워지는 거야. 넉넉하게 한 상 차려 주고 맛있게 먹는 모습으로 그냥 큰 보람이지. 또 없어 보인다고 해서 절대로 박대하거나 소홀히 대접해서는 안 될 일이야.”

‘손님에 대한 무사 공평한 태도와 넉넉하고 푸짐한 인심의 음식!’ 이것이 처음 밥집을 연 김복녀 사돈 할머니의 말씀이면서 곧 손님에게 밥을 내는 명월집의 태도요, 운영 원칙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수절하듯 흐트러짐 없이 50년을 지켜온 것이다.



요즘도 김치찌개는 석유통로에서 보글보글 끓어

거기에 명월집은 밥집으로서의 특색도 50년을 이어 왔다. 백반집이니 결국 밥이나 반찬의 특색을 말하는데, 특히 이 집 반찬이 특색을 가졌다. 반찬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김치찌개와 두툼하게 말아서 썬 달걀말이를 든다. ‘그 까짓 혼해빠진 것들을 두고서는!’ 이렇게 탓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껏 배부른 사람들이다.

50년을 끓여 온 김치찌개는 요즘도 석유통로 위에서 상시 끓고 있다. 적당하게 비계가 붙은, 흠썬 무른 돼지고기 점들이 묵은 김치와 어우러져 찌개를 아주 좋은 냄새와 맛으로 조화시킨다. 셀프여서 마음껏 떠다 먹을 수 있다. 요즘 식으로 무한 리필이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

그 옆 찬장에 상추쌈과 풋고추, 고추장이 놓여 있어 역시 셀프로 제공된다. 이것들도 1년 내내 변함이 없다. 다만, 상추만은 이따금씩 값이 크게 요동을 치고 품귀해지곤 해서 배추 속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다. 나머지는 국 한 가지와 일반 찬으로 제철 나물 무침, 채소, 두부, 콩장, 맛김, 멸치볶음, 생선 무 조림 등 9가지가 나온다.

미각에도 각별한 식견을 가지셨던 고 신태범 박사께서 평소 식미(食味)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어느 도시건 도착해 백반집, 상밥집을 가게 되면 반드시 시장 근처를 들르신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그것은 입맛 까다로운 여러 상인들과 장 보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시장 근처 백반집 음식이 정성스럽고 푸짐하다는 지론에 따르신 것이다.

그 말씀에 거의 맞아 들어간 밥집이 이 명월집이랄 수가 있다. 1962년에 처음 문을 열면서는 그 위치가 지금보다는 신포시장 쪽에 훨씬 더 다가간 중앙동 4가였기 때문이다. 제일은행 인천지점 건너 푸코라는, 제법 특이한 상호를 쓰는 바로 그 다방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사실 신포시장 쪽을 상대했다기보다는 인천항 부두 노동자들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만큼 그들을 주 고객으로 상대했다고 해야 한다.



▲ 명월집을 처음 연 고 김복녀 할머니

‘메리’가 ‘명월’로 바뀐 에피소드엔 웃음나와

그러나 부두 노조원들이라고 해서 배만 채우면 그만이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시장사람들처럼 까다로운 그들의 입맛을 맞추다가 오늘의 메뉴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접하면서 곧 그 경영 원칙이 선 것이다.

오늘의 자리로 집을 옮긴 것은 그 푸코 다방 자리가 워낙 협소해서 1, 2층을 써도 더 이상 밀려드는 밥 손님을 다 맞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몇 곳을 물색해 보다가 중앙동 통으로는 이 집이 나와 있어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밥집이 직원이 많은 시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또 한 얼마나 큰 득인가.

삶에 곡절이 없을 수 없고, 운명은 늘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된다. 경주에서 올라와 서울 모 회사 경리부 여직원으로 있던 남영심씨가 그런저런 운명의 곡절 끝에 3대 사장이 되어 오늘까지 18년 동안 김치찌개를 끓여 온다.

에피소드-사장이 되어 간판을 다는데 영업감찰을 내려 갔던 사람이 그만 새로 지어 간 상호를 깜빡 잊었다는 것이다. 밥집 근처에 있는 서양인을 상대하는 바 ‘위스키 메리’와는 또 무슨 연관이 있었는데 상호를 잊은 그 사람이 입속으로 ‘위스키 메에리’ 운운했던 모양이다. 이것을 듣고는 허가를 내주는 공무원이 유식하게 대뜸 ‘명월(明月)’로 작명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메리’가 ‘명월’이 된 것이다. 백반집이라기보다 요염한 요정 냄새가 풍기는 상호의 작명은 그런 식으로 전혀 엉뚱하게 이루어졌다. 서에 하는 분은 어떤 명월을 생각하며 그런 간판 글씨를 썼는지….

‘흰밥에 국과 몇 가지 반찬을 곁들여 파는 한 상의 음식’이 백반이다. 명월집은 그렇게 50년 동안 백반을 팔았다. 100년 노포(老鋪)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그나마 김치찌개 백반 50년이라니! 기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명월집 ☎773-7890

※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래된 한식당」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이 선정했습니다.



소년, 만화를 그리다

글. 이용남_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_자유사진가

대한민국의 청소년 모두가 그들의 미래를 아인슈타인이나, 반기문, 스티브잡스가 되는 데 걸진 않는다. 운동선수를 꿈꾸거나 노래 잘하고 춤 잘추는 아이들이 되고 싶기도 하고, 게임을 잘하는 게이머 등 다양한 인생의 길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다.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옛날 얼굴을 한 소년은 누구나 재미있어하는 만화를 그리는 것이 꿈이다. 소년은 어릴적부터 손에서 연필을 놓지 않았다. 자그마한 손으로 연필을 쥐고 곤충도감이나 만화책 그림을 곧잘 따라 그렸고 색칠을 하며 그림에 생동감 있는 표정을 불어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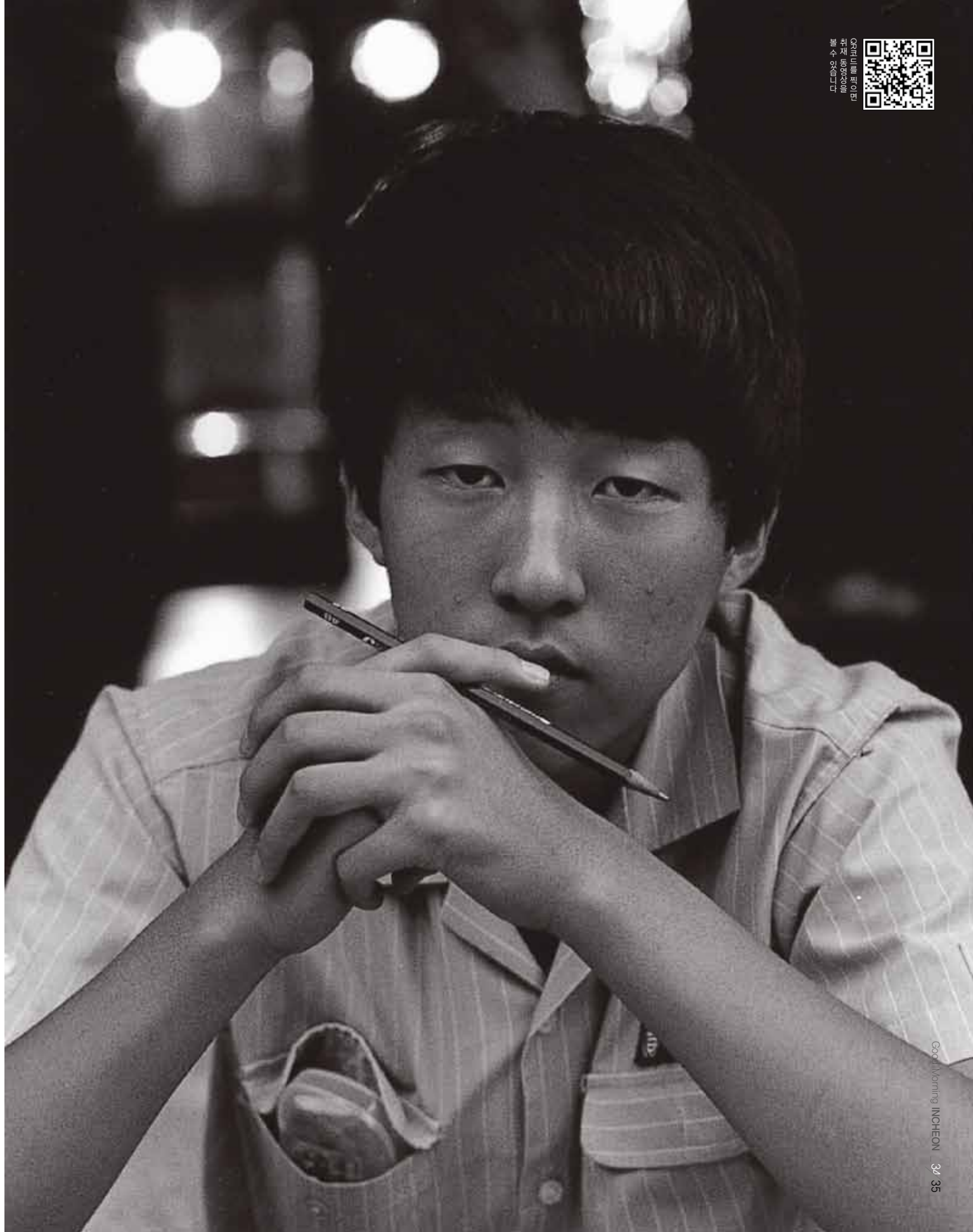
관교중학교 2학년 이진탁(14) 군은 최근 부천에서 열린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중등부 금상을 수상했다. 전국에서 만화 꽤나 그린다는 학생들이 모인 큰 대회에서 자신의 기량을 맘껏 펼쳤다. 예선통과 작품은 자동차 매연이 괴물이 되어 자동차를 망가뜨린다는 내용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표현했고, 본선 출품작은 '같은 민족'이라는 주제로 장구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전통악기지만 난타라는 새로운 음악장르를 통해 얼마든지 재미있고 흥겨운 문화로 탈바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본선에서는 아이디어와 작품을 그리는 것까지 모두 4시간 안에 두 작품을 그려야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정말 잘 그리는 분들이 대회에 많이 참가하지 않아서 제가 상을 타게 된 것 같아요." 이 군의 수상소감은 겸손하다.

이 군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림과 글짓기에 두각을 나타냈다. 교내 대회 상이란 상은 모조로 휩쓸었다. 이 군의 재능을 눈여겨봤던 학교 선생님은 전국 공모전 참가를 권유했고 이후 대회를 나갈 때마다 상을 받았다. 과학상상그리기대회, 인천시 교육청 주최 금연만화그리기대회, 캐릭터공모전 등 수없이 많다. 섬세한 터치와 상상력이 결합된 그림은 전국대회에서도 통했다.

이 군은 이제까지 그림공부를 위해 따로 미술이나 만화학원을 다닌적이 없다. 집에서 혼자서 그림을 그렸다. 학교공부하고 시간이 나면 2~3시간 정도 자신이 생각한 만화를 완성하곤 했다. 만화를 그릴때면 시간가는 줄도 모른다. 토요일에는 동인천에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 만화동아리에 참여한다. 여기서 동아리 선생님의 지도도 받고 다른 학생들의 그림도 보면서 실력을 늘리고 있다. 이 군은 앞으로 애니메이션전문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한다. 만화가의 길을 걷고 싶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만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만화를 그리는 것이 그의 꿈이다.

"만화와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만화를 그릴때면 그림 속에 제가 들어가 활동하는 것 같이 빠져들어요. 시간가는 줄 모르고 그려요. 만화를 그릴때 제일 행복해요." 10년, 20년 후 사람들의 마음에 감흥을 불러 낼 위대한 만화가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국제여객부두 생긴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연수구 송도동 해안가에 들어서는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공사가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달 19일, 연수구 송도동 아암 물류 2단지에서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착공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송영길 시장을 비롯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춘선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공사는 늘어나는 한·중간 여객과 컨테이너 화물 수요를 충족하고 해양 관광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크루즈

선박의 입항을 위해 오는 2016년까지 총 5천600억 원을 투자해 크루즈 15만급 1선석과 카페리 3만 톤급 7선석, 국제여객터미널 1동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1단계로 8만급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카페리 2선석을 개발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맞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항 국제여객부두는 인천항의 물류 중심지로 개발 예정인 아암 물류 2단지 전면 해상에 있기 때문에 물류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준설토 매립으로 발생하는 114만㎡의 배후부지에는 각종 친수문화시설이 조성돼 해양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사업으로 7천1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5천 2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권도엽 장관은 축사에서 “새 국제여객부두는 인천과 인천항의 도약은 물론, 한중 교류 확대와 서해안 시대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며 “정부도 이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항공정책과 ☎440-4824

인천 AG조직위, 관내 대학과 자원봉사 업무협약

인천지역 대학들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기간 자원봉사에 나선다. 지난달 21일 인하대와 인천대, 가천대 등 인천지역 11개 대학 총장들이 인천AG조직위와 대학생 자원봉사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학들은 두 대회의 자원봉사자 모집 활동 뿐 아니라, 성공개최를 위해 각 대학의 처장급 인천 AG지원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인천 AG조직위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2만 명, 2013 인천실내무도AG에 2천700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3 인천실내무도AG 자원봉사 모집은 홈페이지(www.aimag2013.org)를 통해 오는 10월 14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458-2618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7%’ 목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7%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가장 먼저 송도 공공하수처리장 옥상에 설비용량 144kW짜리 태양광발전시설을 준공한다. 이 시설의 연간 발전량은 18만9천kWh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 면적으로 환산하면 3.06ha의 산림 대체 효과를 가져온다. 또 내년에는 공원 세 곳에 3억9천만원을 투입해 8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저탄소 녹색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센트럴공원 내 조명등 4천393개도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 조명등으로 내년까지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의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저탄소 녹색 모범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의 : 경제수도추진본부 ☎440-4351



당구스타 차유람, 인천실내무도AG 홍보대사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당구스타 차유람을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첫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는 내년 6월 29일부터 7월 6일 인천에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 성격으로 열릴 예정이다. 대회 종목은 당구·바둑·태권도·댄스스포츠 등 9개다. 차유람은 지난달 8일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당구 종목이 포함된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를 널리 알리고 대회에서 금메달도 따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458-2132



생수보다 ‘수돗물’ 더 맛있다

우리시의 수돗물 ‘미추홀 참물’이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보다 맛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개최된 3개 축제행사에서 미추홀 참물과 시중에서 판매하는 2개 회사의 생수로 시음행사를 벌인 결과, 미추홀 참물이 가장 맛있는 물로 선택됐다. 3개 행사의 비교시음 블라인드 테스트에 참여한 시민 2천 626명 가운데 미추홀 참물을 선택한 사람이 1천212명(46.1%), A사와 B사 생수가 각각 635명(24.2%)과 402명(15.3%), 차이 없음 377명(14.4%)으로 집계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들어 1일 평균 1만 5천병씩 총 170만병을 생산했으며,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2014년에는 연간 1천만병을 만들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문의 : 시 상수도사업본부 ☎720-2025



소래습지생태공원, 자전거 무료 대여

앞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무료로 자전거를 빌려 즐길 수 있다. 지난달 7일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자전거 무료 대여소 개소식이 열렸다. 공원 입구에 마련된 자전거 대여소는 성인용 60대, 청소년용 25대, 2인용 15대 등 자전거 100대를 구비했다. 대여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개인별로 최대 3시간까지 빌릴 수 있다. 14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맡기고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문의 : 남동구청 ☎466-3811



버스노선 체계 연내 대폭 개편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우리시는 시내버스 노선 210개 가운데 18개를 폐선하고 96개를 개편하는 내용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기존 노선의 54.2%가 바뀌는 셈이다. 개편은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신도시 입주 가속화와 원도심 인구 감소, 공항철도 개통, 수인선 1단계 개통 등 지역구도 변화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 변화에 따른 것이다. 간선버스 89개 노선 가운데 8개 노선은 폐선하고 47개 노선은 개편한다. 지선버스는 75개 노선 중 9개를 폐선하고 36개를 개편한다. 좌석버스는 14개 노선 가운데 7개를 개편하고, 간선 급행버스 8개 노선은 6개를 개편하고 1개는 폐선한다. 광역버스는 1101번 1개 노선만 개편한다. 또한 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신설 노선도 5개 마련된다.

문의 : 시 버스정책과 ☎440-3952

<div data-bbox="210 150 640 369"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134 401 763 904" data-label="Text"> <p>2015년 송도에 ‘재미동포타운’ 조성</p> <p>2015년 송도국제도시에 재미동포타운이 조성된다. 우리시와 인천경제청, 코암인터내셔널은 지난달 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재미동포타운 건립을 위한 실행협약을 체결했다. KAV1은 재미동포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송도 5·7공구 일대 부지 5만3천625㎡를 1천780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재미동포타운에는 아파트 849가구와 오피스텔 1천500가구, 상가, 스포츠센터, 재미동포센터 등이 들어선다. 재미동포센터에는 미국 주요 도시의 한인회 사무실이 무상 제공되고 게스트하우스, 행사장, 사무실과 회의실 등이 입주한다. 재미동포타운은 재미동포가 50% 이상 입주하고 나머지 물량은 내국인에게 분양할 예정이다.</p> <p>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141</p> </div>	<div data-bbox="882 150 1312 369"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763 401 1391 904" data-label="Text"> <p>인천항에 의료관광 체험관 개장</p> <p>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의료관광 홍보체험관이 설치됐다. 인천의료관광재단은 지난달 4일 터미널 1층에서 인천메디컬인포메이션센터(IMIC)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련된 센터는 발마사지 기계, 혈압계, 체지방 측정기 등을 갖추고 간단한 건강검진과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의료관광재단은 터미널 연간 이용객 100만명 중 60만명이 중국인인 점을 감안, 센터에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간호사도 배치했다. 재단은 해운선사, 여행사와 공동 마케팅을 벌여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p> <p>문의 : 인천의료관광재단 ☎260-3116</p> </div>
<div data-bbox="238 991 616 1271"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134 1304 763 1806" data-label="Text"> <p>부평·계양 자전거도로 아라뱃길 연결</p> <p>우리시는 부평·계양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경인아라뱃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연결한다. 지난 5월 아라뱃길 자전거도로(38km)가 개통했지만 부평과 계양 지역의 경우, 차량통행이 많고 도로가 좁은데다 연결 자전거 도로가 없어 접근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는 2013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총 37억원을 들여 자전거 연결도로 7.6km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굴현역~박촌3거리(0.8km)는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부평구 삼산동~계양구 계산동(3.7km)은 자전거도로 포장정비와 지장물 이설, 서부간선수로(3.1km)는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과 병행해 자전거도로로 연결한다.</p> <p>문의 : 시 도로과 ☎440-3782</p> </div>	<div data-bbox="900 991 1294 1255"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763 1304 1391 1806" data-label="Text"> <p>국정시책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 재정인센티브 26억 확보</p> <p>우리시가 2012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총 9개 분야 중 보건위생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획득해 정부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25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번에 우리시가 받은 국정평가 결과는 국정시책 합동평가 시행이후 최고 점수로 지난해에 비해 150%이상의 실적 상승효과를 거뒀다.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에 의하면 우리시는 수도권 최고의 성적으로 3개 분야(보건위생, 지역개발, 중점과제)에서 가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범 실시된 지역특화분야 평가에서 '사랑' 꿈 사업이 일반행정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됐다.</p> <p>문의 : 시 평가조정담당관실 ☎440-2122</p> </div>

도로 확충사업 국비 281억원 확보

우리시는 기획재정부 최종 국비 심사에서 관내 4건의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 국비 281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2-1공구)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 사업비 중 요구액(130억원)이 전액 반영돼 내년 10월 준공이 가능하게 됐다. 보상 중인 광역도로 인천 서구~김포신도시간 도로개설에 대한 국비도 당초 35억원에서 상향 조정된 67억원을 확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초지대교~인천(2-1공구)의 김포시 전체 구간(7.88km) 중 양촌산업단지~인천시계간(0.6km)을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5억원(당초 1억원)으로 증액돼 인천~김포~강화를 잇는 도로망 확충사업에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문의 : 시 도로과 ☎440-3772

반딧불이 보러 인천대공원 가자

동부공원사업소는 지난달 20일 지역 환경단체 회원들과 인천대공원 습지원에 애반딧불이 유충을 방사했다. 다슬기를 먹고 사는 애반딧불이를 위해 500㎡ 규모의 다슬기 번식장도 설치했다. 동부공원사업소는 내년 9월까지 1년 간 이들의 생육 과정을 모니터링한 뒤 추가 방사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도 이달 안에 인공증식한 애반딧불이 유충 300마리를 인천대공원과 계양산 일대에 방사할 예정이다.

문의 : 동부공원사업소 ☎440-5874

제물포스마트타운 1년, 151명 창업

우리시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물포스마트타운(JST)이 1년간 151명에게 창업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고용 유발 인원은 292명이고, 누적매출액은 62억8천만원이다. 시는 JST 참가자에게 창업교육과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 이후 6개월 이내 창업시 사업 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창업동아리, 워크숍 등을 운영해 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멘토링, 컨설팅 등의 상담 업무도 진행한다. 창업경진대회 수상자에게는 1천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2차례 연 경진대회에서 우수 창업 아이템 31건을 선정해 지원했다.

문의 : 제물포스마트타운 ☎250-2181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 가입

우리시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건강도시 인천조례 제정, 전담조직 신설, 환경·교통·식품 등 분야별 사업 확대 등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1·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WHO가 정의하는 건강도시는 시민들의 상호협조 하에 시민들이 삶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개선하며, 지역자원을 확충하는 도시를 뜻한다.

문의 : 시 보건정책과 ☎440-2722



"GCF, 송도 스타일~"

GCF 송도스타일~♪ GCF 락 내 스타일~! 이쯤대워 사랑스러워~♪
GCF Hey 그레 바로 너, 송도

삼삼오오 몰려든 사람들이 한순간 사이의 말춤을 추기 시작한다. 노래는 ‘강남 스타일’을 개사한 ‘GCF, 송도스타일’~! 꼬마 아이부터 젊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함께 즐거운 표정으로 음악에 몸을 맡긴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저 신기한 듯 춤추는 무리를 바라본다. 지난달 송도센트럴파크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유치를 기원하는 플래시몹이 펼쳐졌다. 최근 송도는 GCF 유치 열기로 한껏 달아올랐다. GCF는 세계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대처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되는 국제기구로, 현재 사무국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6개국에서 경쟁 중이다.

문의 : 시 환경정책과 ☎440-3433

인터뷰

구재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의회 문턱 낮추고 대의기관 역할 충실”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정책, 열린, 책임의회를 펼쳐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수장을 맡은 구재용 의원(서구2)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집행부를 감시하고, 의원 상호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지를 살펴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잘 이끌겠다는 다짐을 한다.

구 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의회를 이끄는 기본뼈대가 되고, 상임위원회간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앞장설 생각이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어갈 생각이다. 특히 시민이 의회홈페이지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정보격차 해소의 장으로 삼아 의회의 문턱을 낮추어 나갈 계획이다. 또 자치입법을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생활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 의정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나가겠다는 힘찬 의지를 보인다.

구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상호 존중하고 조율하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적극 요청”

“시민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조정과 중재의 역할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계양3)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활동 방향을 전문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견제와 대안제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수준의 국비확보를 중앙정부에 호소할 생각이며 종목별 경기장 신설과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선도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인천시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도 한층 힘을 보탬 생각이다. 시민사회와 정부, 정치권을 향하여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도와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시민들의 어려운 곳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의정으로 시민들을 만날 계획이다. 생활정치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단 한 명의 시민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고 달려가 함께하겠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경제수도 인천건설을 위한 노력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성원을 요청했다.



2014 AG 국비지원 요청 대선 후보들에 건의



인천광역시의회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확대를 각 정당별 대통령 후보들에게 건의했다. 이성만 시의회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인천만의 지역잔치가 아니라 국가적 행사로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며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인 경기장 신축 및 개축 보수사업비 75% 이상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에 넣어달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모든 지자체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은 아시아경기대회, 도시철도 사업 등 특수 재정 수요로 어려움이 더 하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공무원 수당 삭감과 알짜배기 재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심혈을 쏟고 있고,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규모축소, 인근 도시경기장 활용, 임시시설 경기장 조성(크리켓), 사후 활용방안 등 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건설현장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4일(화)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건설 현장에서 임시회 제1차 의사일정으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건교위 소속 위원들은 검단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를 무분별하게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고 이로 인해 토지분양자가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어 주민에게 재산상의 불편을 주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점과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의 내용이 객관성 등을 결여한 채 사업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한 문제점 등 주요사업에 대한 질문과 질타 등 현장감 있는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원안가결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7일(금) 인천시교육청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교육위원들은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인천에 술고의 학습동 및 급식소 증축계획을 심의 하면서 집행부의 종합 계획 부실을 한목소리로 매섭게 질책했다.

박문여중 · 고 이전관련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8월 24일(금) 오후 4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광역시의회 김기홍 의원의 진행으로 ‘박문여중 · 고 이전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기본계획 및 시교육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단 이호근 단장이 기조 발표했다.

‘박문여중 · 고 이전관련 원도심 교육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 개진으로 폭 넓은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조속 설립추진 주장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은 지난달 9, 10일 문화복지위원회 제 203회 임시회에서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고려역사문화재단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은 인천 강화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설립한 재단이다.

소방안전본부 방문

이성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6일 (목) 인천소방안전본부를 방문해 “태풍 불라벤, 덴빈 등 여름철 재해에 앞서 사전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대처로 인천지역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소방 · 방재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안전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헌연일체가 되는 직원들께 항상 감사한다”고 전했다.

생활정보

이정웅 사진전 ‘수련’

사진공간 배다리는 10월 이정웅 사진전을 연다. 사진전시에 관심이 많은 시민에게 유익한 자리다.

제 목 : 이정웅 사진전- 수련

기 간 : 10월 12일(금)~31일(수), 목요일 휴관

장 소 : 사진공간 배다리(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14-10)

문 의 : 010-5400-0897, 070-4142-0897

사진가 이정웅은 내년에 팔순을 맞는 노사진가다. 중학교 입학기념으로 선물 받은 사진기로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사진세계와 함께 살아오고 있다. 이후 그는 인천 사진의 대부로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 지회장 및 본부 이사 와 감사, 자문위원으로 현재까지 왕성한 사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사진전 은 4번째 갖는 개인전이다.

율목도서관 10월 문화예술 행사

율목도서관은 2012년 10월 문화예술 행사를 연다. 인문학 강좌를 비롯 해 도서 전시회도 개최하니 관심있는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

인문학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내용	대상
클래식 인문학	10월 6일~27일 매주 토 오후 2시	미국 가곡과 함께하는 허클베리 핀	청소년 이상
인문학특강 『비움+채움』	10월 18일(목) 오후 7시	心 우리는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강신주(대중철학자)	성인
도시인문학	10월 6일~20일 매주 토 오전 10시	근대도시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묻다	청소년 이상

장소 : 율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문의 : 770-3800

율목도서관 도서 및 비도서 전시

제목 : 10월 도서 및 비도서 전시전

운영기간 : 10월 2일(화) ~31일(수)

전시명	내용	장소
문학의 현장 속으로	청소년 동아리의 문학기행기를 사진 및 소감을 함께 전시	일반자료실
테마 비도서 전시	OST로 유명한 영화 전시 및 소개	디지털자료실
신착비도서 전시	신간 입수된 비도서 작품 전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해찬나래 추가 모집

동구청소년수련관은 2012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해찬나래에 참여할 학생을 추가모집한다. 방과후 교실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대상 : 2012년 중학교 1학년

운영기간 : 2012년 1년 사업

운영시간 : 월~금 16시~20시 30분 / 매주 토요일

프로그램

교과학습과정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국사, 개별숙제지도, 독서활동
주중체험과정	방송댄스, 모듬북, 영어연극/뮤지컬, 우쿨렐레, 창의력미술
주말체험과정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사업, 자원봉사활동, 예술문화체험
생활지원과정	급식 · 간식지원, 귀가차량지원,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상담, 장학사업

참가비 : 전액무료(교재비 및 개인재료비 본인부담)

문의 : 777~7942(내선4번)

대학 학과 체험, 또래 성교육 교실

동구청소년수련관은 10월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다. 직업에 대한 학과 체험, 또래 성교육 등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문화존 “먹고,뛰고,놀자!” 신청하세요~!!

프로그램	내용	활동시기	대상	신청기간
내 꿈의 네비게이터 “나도 하고싶은 일이 있어”	직업에 따른 학과 체험: 대학교/전문계고/ 특성화고 학과 체험 (교외봉사활동 3시간 인정, 확인서발급)	10월 20일(토) 오후 1시 30분~4시 송현근린공원 분수광장	동구지역 청소년 500명	동구지역 8개교 재학생은 학교로 신청

문의 : 761-1318(내선201번)

또래성교육 청소년활동을 모집해요~~

프로그램	내용	활동시기	대상	신청기간
“아한 질문! 쿨~한 대답!”	청소년이 성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풀어놓고 해답을 스스로 찾아가기	10월 20일(토) ~11월 3일(토) 동구청소년수련관	중3~고2 남 · 녀청소년 15명	동구지역 8개교 재학생은 학교로 신청. 개별 신청은 10월 13일(토)까지

문의 : 761-1318(내선203번)

인천사랑티켓 지원작품 공연

인천예총은 인천사랑티켓 9~10월 지원작품을 공연한다. 아동극이 대다수지만 ‘인천국제클라운마음축제’나 ‘키즈브런지 클래식-발레왕 차이코프스키’처럼 학생과 성인이 함께 관람해도 좋을 작품들이 눈에 띈다.

(아동극) 꿀꿀꿀 대소동 – 아기돼지 삼형제 : 10월 24일, 계양문화회관
(아동극) 매직팔레트 : 10월 24일~2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아동극) 키즈 브런치 클래식 ‘발레왕 차이코프스키’ : 10월 26~27일, 남동문화예술회관
• 지원대상 : 아동 및 청소년(만 24세 이하), 어르신(65세 이상)
• 지원내용 : 사랑티켓 참가작품 관람료 일부 지원
(공연-7,000원, 전사-5,000원)
• 문의 : 872-7873, www.artin.or.kr, www.sati.or.kr

2012년도 인천사랑티켓 9~10월 작품 소개

(아동극) 목 짧은 기린 지피 : 10월 3일~11월 25일

인천어린이과학관 공연장

(아동극) 환경뮤지컬 ‘빼꼼이의 음악여행’ : 10월 5일 인천서구문화회관

(아동극) 내 친구는 신발도둑 – 양갱이 설화를 모티브로 한 가족뮤지컬 : 10월 8일~13일 학산소극장

(아동극) 편식쟁이 모험 : 10월 10일~11일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

(아동극) 해님달님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 10월 12일 인천서구문화회관

(아동극) 신데렐라 – 발레로 읽는 동화 무용극 : 10월 19~20일

인천서구문화회관

청소년기자단 제13기 모집

우리는 청소년기자단 ‘청소년웹진 MOO’ 제13기를 모집한다. 기자에 관심 있는 청소년의 지원 바란다.

신청기간 : 10월 1일 ~ 25일(25일간)

신청자격 : 인천 거주 15~17세 청소년

신청방법 : MOO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모집분야 및 인원

- 취재기자 : 10명(작문 및 면접시험)
- 촬영편집기자 : 1명(프리미어 · 포토샵 편집프로그램 및 면접)

일정

- 실기심사 : 11월 3일(토), 15:00
- 면접심사 : 11월 10일(토), 14:00
- 최종 선발발표 : 11월 20일(화)

청소년 기자 활동

- 활동기간 : 2013년 1월~12월(1년)
- 한달 3건 기사 작성 및 2번 편집회의 참석

문의 : 440-2844

10월 미추홀도서관 행사 안내

10월 문화의 달, 미추홀도서관에는 다채로운 전시, 공연, 강좌가 가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특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대상	문의
작가와외 만남 『엄마의 마흔 번째 생일』 저자 최나미 작가	10월 6일(토) 14:00~16:00	강당(지하1층)	전체	440-6662~4
미추홀도서관 가을 음악회	10월 20일(토) 14:00~15:20	강당(지하1층)	전체	440-6643
한복순 작가전	10월 4일(목)~21일(일)	미추홀터(1층)	전체	440-6643
아기사랑 프로젝트♥ 북스타트(BookStart)부모교육	10월 27일(토) 13:00~14:00	강당(지하1층)	인천시 거주 영 · 유아 부모	440-6647~8

상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대상	문의	
애들아, 숲에서 놀자	10월 13일(토) 10:00~12:00	남동문화공원	초등 3~4학년	440-6662~4	
시민건강강좌 (주제 : 심장질환)	10월 13일(토) 10:30~11:30	세미나실 1 (3층)	전체	440-6662~4	
북스타트 아기 천사들의 목(목)소리	매주 목요일 11:00(1회), 15:00(2회)	꿈나무터(1층)	인천시 2012년 출생영아, 만18개월 영유아 및 부모	440-6647~8	
미추홀 영화 상영	매주 토·일 14:00	강당(지하1층)	-	440-6641~2	
꿈 나 무 터 문 화 교 실	꿈나무터 극장	매주 화요일 16:00	꿈나무터 문화교실(1층)	4세~초등 5학년	440-6647~8
	꿈나무터 견학	매주 화·목 10:30	꿈나무터 문화교실(1층)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세상	매주 목요일 10:40	꿈나무터 문화교실(1층)	미취학 아동	
	책마중(관외예약 대출·반납)서비스	24시간 대출·반납	예술회관역(지하2층) 미추홀도서관(1층입구)	미추홀도서관 회원 (타관회원→등록 후 이용가능)	440-6634~5

제4회 평화통일 포스터 공모전 안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회의는 청소년들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2년 제4회 평화통일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참가자격 : 인천지역 초 · 중 · 고등학생

주제 : 평화통일 관련내용의 포스터

규격 : 포스터 4절

포스터 접수

- 접수기간 : 9월 3(월) ~ 10월 5(금)
- 접수방법 : 우편 접수(10월 5일 소인 유효), 직접 접수 가능
(반드시 신청서 첨부하여 발송요망)
- 접수처 : (우 405-835)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7 씨티은행빌딩 8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회의

문의 : 421-6780

영종도서관 10월 문화프로그램

영종도서관은 10월 동안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 관심 있는 주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

10월 문화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기간	장소	대상
전시	우보 민승기 멋스러운 우리 한글展	10월 9일(화)~31일(수)	1층 로비	전체
	한눈에 반한 도서관, 엔지 컬럼	10월 9일(화)~31일(수)	공자람터 (1층 어린이실)	전체
	신비로운 문자, 한글도서관서展	10월 9일(화)~31일(수)	어문학실	전체
상시	어린이독서퀴즈,골든 Book을 올려라!	10월 2일(화)~31일(수)	공자람터 (1층 어린이실)	초등
	빛그림무지개 "영상동화 읽어주기"	10월 6일, 20일(토) 11:00~2:30		유아
	도서관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책나라 여행	매주 금 16:00~16:50		
	행복 전하는 동화배달부 찾아가는 동화 읽어주기	10월 16일(목) 15:00~17:00	인천보라매아동센터 구립 해송노인요양원	-
특별	병영독서 북콘서트 내 영혼을 축(燭)축(燭)이 적서줄'스나.기.'	10월 24일(수) 10:00~11:30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장병
	도(島)시(詩)락(樂) 콘서트	10월 19일(금) 18:00~20:00	영마루공원	전체
	작은 천재 다빈치 2기	10월 6일(토)~27일(토)	세미나실 2	초등
	영화로 만나는 직업의 세계	10월13일(토), 20일(토)	소극장	중등
	성인독서동아리 <섬마을 문학동네> 저자 한명석 작가 특강	10월 18일(목) 13:00~15:00	세미나실1	성인 독서 회원
	영종도서관 2012 북스타트(BookStart)	10월 매주 금요일 10:00~14:00	공자람터 (1층 어린이실)	유아

문의 : 745-6000

공직자 도로명주소 전환하기 이벤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29일 도로망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고 주민 등록 등 대부분의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대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응모기간 : 9월 20일(목) ~ 10월 10일, 3주간

당첨경품 : 스마트폰(갤럭시노트) 2명, 온누리상품권 3만원×300명

당첨자발표 : 10월 11일(목), 무작위 추첨 전자우편 통지

※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아 스마트폰 '주소찾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600년’ 인천도호부대제

인천예총은 제48회 인천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과 정명 600년을 위한 인천도호부대제를 연다. 관심있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행사개요

일시 : 10월 6일(토) 09:00~15:00

장소 : 인천도호부청사

행사내용

1. 식전행사 (09:00~10:00)

- 도호부대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행사
 - 성공적 행사를 위한 판굿, 명금일하 대취타대 행렬
 - 소원성취 전통연날리기, 시민참여행사(민속놀이) 등

2. 대제봉행 (10:00~11:30)

- 기념식
- 대제봉행

순서	항 목	내 용
1	영신례(迎神禮)	집례(執禮)와 집사(執事), 헌관(獻官)이 절을 하며 예를 올림
2	전폐례(奠幣禮)	초헌관(初獻官)이 예를 갖추어 폐백을 신위전에 올림.
3	진진례(進饌禮)	제상에 제물을 진설하는 예를 행함.
4	초헌례(初獻禮)	초헌관이 첫잔 올리고 예를 행함. 대축(大祝)이 축문(祝文)을 읽음
5	아헌례(亞獻禮)	아헌관(亞獻官)이 둘째잔을 올리고 예를 행함.
6	종헌례(終獻禮)	종헌관(終獻官)이 셋째잔을 올리고 예를 행함.
7	음복례(飲福禮)	신이 주는 복을 받는 예를 행함.
8	철반두(徹饔豆)	반두를 건우는 예를 행함.
9	망료례(望燎禮)	의례를 마친(축과 폐를 땅에 묻는 의식)
10	퇴장(退場)	헌관과 집례보조, 무동 전원이 퇴장.

3. 식후 부대행사 (12:00~15:00)

- 음복례-음식나눔행사
- 서예 퍼포먼스(가훈씨주기)
- 경기, 서도 민요
- 국관악 협주, 연 만들어 날리기
- 한국무용, 제기 만들어 차기
- 시민장기자랑, 퀴즈대회

인천관광 레포츠펬어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기념하는 인천관광레포츠펬어대회가 열린다. 관광과 레저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

장소 : 송도컨벤시아

일시 : 11월 23~25일

문의 : 458-2132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불법 사금융 신고, 대출 등의 상담과 접수

인천시는 저신용자·저소득 계층 등 서민이 금융수요 증대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과 생활경제과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이미 운영 중인 종합민원실내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창구와 별도로 본관 3층 생활경제과(309-1호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원내용

- 금융감독원(월~금요일) 서민금융제도 및 불법 사금융 신고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월~금요일) 서민금융지원(고금리 대출자를 저금리로 전환), 소액대출·부채증명원 발급업무
 - 미소금융중앙재단(월~화요일) 소자본 창업·운영자금 대출상담 및 접수
 - 신용회복위원회(수요일) 신용회복 지원 상담 및 접수
 - 인천신용보증재단(목요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상담 업무
- ※ 금융 상담 및 신청, 안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

참여기관별 지원내용

참여기관명	주요 지원내용	요일별	장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제도 안내, 불법사금융 신고 안내	월~금	본관3층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지원(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소액대출, 부채증명원 발급	월~금	종합민원실
미소금융중앙재단	소자본 창업·운영자금 대출 상담 및 접수	월~화	본관3층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 상담 및 접수	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상담	목	

※ 운영시간 : 매주 월~금요일, 10:00 ~ 17:00

문의 : 440-4228, 4229

월미공원 가을맞이 문화행사

서부공원사업소는 월미공원을 방문하는 시민을 위해 월미공원 내 한국전통정원에서 다채로운 가을맞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월미공원 가을맞이 문화행사에 많은 참여 바란다.

가을맞이 월미공원 문화행사

구 분	프로그램	일 시	장 소
주말 상설체험	짚풀공예, 흙공예, 전통혼례체험, 국악공연 등	9월 22일(토)~10월 28일(일) 매주 토,일요일 [단, 9월 30일(일)제외, 10월 12일(금)추가] 14:00~17:00	전통정원 양친당
한가위 민속행사	농악놀이, 민속놀이체험, 송편만들기 등	9월 30일(일), 10월 1일(월) 13:00~16:00	전통정원일대
벼베기 행사	풍물놀이, 벼베기, 탈곡, 땅콩캐기 등	10월 6일(토) 10:00~13:30	전통정원 초가 앞
가을맞이 음악회	지역 음악단체 및 동호회	10월 13일(토), 14일(일), 20일(토), 27일(토) 14:00~15:30	월미공원 제물포마당
국화축제	국화작품 3만여 점 전시	10월 12일(금)~10월 31일(수)	전통정원일대
월미공원 상시체험	전통궁중의상 체험	매일 진행 14:00~17:00	전통정원 양친당

인천사회적은행 창업지원사업 공고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은 개인 사업자를 위한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린다.

사업장 또는 창업예정지가 인천시내인 만 20세 이상의 인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법인사업자 제외)로서

① 최저 생계비의 200% 이내인 저소득층 해당자(아래 표 참조) 또는

② 실직자·장애인·여성가장·한부모가장·다둥이가정·다문화가정 해당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금액	1,065,000원	1,814,000원	2,346,000원	2,879,000원	3,411,000원	3,944,000원
건강보험료(월)	35,800원	51,000원	67,300원	89,000원	97,700	111,700원

※ 사업예정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보증추천 및 대출실행

신청제한

①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이용 사전점검표의 점검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불임1)

② 재보증 제한업종(불임2)

교육 및 훈련 지원 : 사업계획서작성 등 창업관련 기초교육 및 실무대처 향상을 위한 지원

※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교육·훈련 참여 않을 시 탈락처리

자금지원

• 원칙적으로 2천만원 이내의 창업자금(임차보증금 등)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 연 3%이내, 5년 만기(6개월 거치 원리금 월균등분할상환)

※ 단, 2012년 거차기간 중 이자에 대하여는 연5% 적용

경영지원 : 향후 5년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지원

문의 : 873-3800

2013 실내무도 AG 홀피 오픈기념 이벤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는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홈페이지를 9월 1일 오픈했다. 홈페이지 오픈기념으로 온라인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벤트명 : 2013실내·무도AG 홈페이지 오픈기념 온라인이벤트

기간 : 10월 21(일)까지

참가대상 : 네티즌 누구나

발표 : 10월 25(목)

이벤트 내용 및 경품

• 내용 : 2013실내·무도AG 대회관련 퀴즈풀고 응원하기

• 경품 : 갤럭시노트10.1 1명, USB메모리 32GB 10명, 2만원 상품권 50명

이벤트 페이지 링크 주소(인천실내무도AG 홈페이지 이벤트센터) :

www.aimag2013.org/ko/Community/EventDetail/2

문의 : 458-2383

예방접종 바로알기 캠페인

예방접종 바로알기 캠페인은 대한민국 엄마에게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어린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예방접종을 향상에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자 진행된다.

캠페인 개요

일정 : 9월 12일~10월 31일(2개월)

대상 : 누구나

참여방법 : nip.cdc.go.kr(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팝업창 공지) 또는 www.vac2012.kr(제 6회 예방접종 바로알기 캠페인 사이트)

주요내용

- 오프라인 이벤트
 - 기업 산모교실과 함께 하는 예방접종 1초퀴즈
 - 전국 527개 산후조리원 교육홍보물 제공
 - 전국 79개 공공 어린이 도서관 내 어린이용 교육홍보물 게시
- 온라인 이벤트
 - 서약이벤트 '엄마의 건강한 약속'
 - 예방접종 영상 공모전 '예방접종 스타 오디션'
 - 예방접종 사진 공모전 '예방접종 슈퍼모델 선발대회'
 - 모바일 이벤트 '예방접종도우미 앱 다운로드'
 - 바로알기 퀴즈이벤트 '예방접종 퀴즈 대한민국'
 - 예방접종 설문조사 이벤트

문의 : 440-2747

인터넷 중독 극복 수기공모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사회문제 확산방지 및 대국민 위험인식 제고를 위하여 제4회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 극복 수기공모전을 개최한다.

행사명 : 제4회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 극복 수기공모전

공모내용

-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 극복 수기
 -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중독으로 발생된 문제(학교, 가정 등) 극복 사례
 - 개인이 직접 중독을 체험한 수기나 예방 및 극복 비법 등
-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 우수 상담사례
 - 선생님, 상담사, 부모님의 학생지도 중 인터넷중독예방 및 극복 지도수기
 - 올바른 인터넷 및 게임 사용문화 정착 및 중독 예방 비법 등

접수기간 : 9월 13일~10월 12일(금)

접수방법 :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또는 첨부파일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수기 A4 3장 내외, 상담사례 A4 10매 내외 권장)

당선작발표 : 2012년 11월 중,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참가자격 : 국민 누구나 가능 (제한없음)

문의 : 1599-0075, 02-3660-2582, 2596

‘살기좋은 인천만들기’ 연구 아이디어 공모

인천발전연구원은 ‘살기좋은 인천만들기’ 연구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인천에 거주하면서 느낀 문제점이나 인천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연구아이디어를 제안받는다.

공모분야 :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도시계획, 교통, 환경, 산업, 경제, 경영, 관광, 물류, 여성, 문화,예술, 사회복지 등)

공모기간 및 방법 : 9월 20일~10월 10일

-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idi.re.kr)에 직접 입력 또는 연구과제 아이디어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issue@idi.re.kr)로 제출

참가자격

- 인천광역시 전 시민(제안과제 3개까지 복수지원 가능) 심사기준
- 연구과제 아이디어의 창의성, 실용성, 적시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결과발표

- 10월 말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idi.re.kr) 게시
- 최우수 1명 상품권 100만원
- 우수 2명 상품권 각50만원
- 장려 5명 상품권 각20만원

문의 : 260-2723

드라마 치료를 통한 부모코칭

인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부모교육인 드라마 치료를 통한 부모코칭의 자리인 부모교육 워크숍을 연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

강사 : 김세준 교수

(SBS 플러스 '미워도 다시 한 번', EBS '고부가 달라졌어요' 등)

일시 : 10월 23일(화), 26일(금), 30일(화), 11월 2일(금)

(화요일, 금요일 - 총 4회 진행, 10시~12시 30분)

장소 : 1회, 2회 = 인천시여성복지관 1층 세미나실

3회, 4회 = 인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4층 교육연수실

대상 : 학령기(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40명 선착순 접수)

내용 : 부모 자신의 성향을 알아보고, 건강한 양육자로서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원가족과의 미해결된 문제를 통찰해봄으로써 좋은 부모의 모습에 대한 역할과 격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참가비 : 총 4회 참가비 5,000원 입금 후 선착순 신청완료!
(국민은행 653601-01-351179, 인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의 및 신청 : 721-2300, 2316

UN ESCAP 정부간고위급회의 및
인천세계장애대회
Incheon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Disability

2012.10.24 - 11.2
인천 송도 컨벤시아

www.incheon-disability.kr



이달의 서평



친절한 음악책

김드리 | 돌출새김 | 2012

도레미도 모르는 초보자들이 쉽고 가깝게 읽을 수 있는 음악 안내서. 클래식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도레미'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책은 가장 기본적인 음악상식과 종류 그리고 음악회에 간다면 옷을 어떻게 입는지, 박수는 언제 치는지, 화장실은 언제 가는지 등의 에티켓을 알려준다. 또한 작곡가들의 이야기와 시대, 음악을 훑어보는 등 부담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매 장 여기저기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속 음악이야기와 귀여운 일러스트 등은 음악상식이나 클래식에 대하여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별을 스치는 바람

이정명 | 은행나무 | 2012

생체실험의 희생자로 27세의 나이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한 시인 윤동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소설은 거대한 역사에 휘말린 개인의 역사를 담아낸 팩션이자, 어떤 전쟁의 광기도 희망을 막을 수 없음을 이야기 하는 휴머니즘 전쟁소설이다. 절망으로 둘러싸인 형무소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청년 최수(윤동주)와 문장을 살해하는 검열관(스기야마 도잔)의 시와 문장을 매개로 한 비밀이 밝혀지며 시인 윤동주의 삶과 죽음이 30여 편의 아름다운 시편들을 통해 되살아난다.

떠난 뒤에 오는 것들

이하람 | 상상출판 | 2012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행의 의미를 작가 특유의 독특한 시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작가는 여행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가고 싶은 것이라고 하며, 다시는 못 와볼 곳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꼭 와보고 싶은 곳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꼭 자이를 발견해야만 여행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떤 뚜렷한 여행스케줄을 정해놓고 완벽히 섭렵하는 여행이 옳은 것일까, 그저 마음을 조용히 덜어내고 무엇이든 가볍게 채우고 돌아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 책은 여행의 목적을 찾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여행의 본색'을 말하고 있다.



영어 스피킹 기적의 7법칙

윌리엄 A.반스 | 로그인 | 2012

예일대 유학생들이 뽑은 20년 연속 최고의 강의! 이 책은 지난 20년간 세계 75개국 사람들의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획기적으로 올려준 예일대 윌리엄 반스 박사의 수업을 최초로 출판화했다. 반스 박사의 '예일대 7단계 영어훈련법'은 토플 점수는 높지만 스피킹 실력은 제로에 가까운 아시아계 유학생들을 단기간에 미국 최고의 명문인 예일대생의 자부심을 가질만한 영어회화 수준으로 끌어올려 온 혁신적인 영어 스피킹 프로그램이다.



주제별 추천도서

자료제공 | 미추홀도서관 440-6655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거북이는 왜 달리기 경주를 했을까	김경집	꿈결	특독 튀는 질문과 함께하는 인문학 이야기
콰이어트	수전 케인	알에이치코리아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힘
우물을 파는 사람	이여령	역사의 아침	당신이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의 무게
부자들의 동창회	이영권	대교북스	돈이 가진 속성과 부자가 되는 핵심원칙 소개
오늘의 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추경	양철북	과학으로 읽는 지구 설명서
단순한 뇌 복잡한 나	이케가야 유지	은행나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뇌 과학서
친절한 음악책	김드리	돌출새김	맨땅에 헤딩하는 유쾌한 음악시간
자화상전	천빈	아비웃아북	세계적인 미술관이 소장한 거장들의 자화상 200여점 전람회
영어 스피킹 기적의 7법칙	윌리엄 A.반스	이퍼블릭	예일대 유학생들이 뽑은 20년 연속 최고의 강의
별을 스치는 바람	이정명	은행나무	잔인한 전쟁도 막을 수 없었던 자유와 문학에의 갈망
감사합니다 한국	이케다 다이사쿠	조선뉴스프레스	한국과 한국인을 뜨거워 인간애로 감싸온 이케다 다이사쿠의 고백
떠난 뒤에 오는 것들	이하람	상상출판	여행에서 찾은 100가지 위로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이하람

방송작가, 여행작가

1982년 인천 출생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 졸업

KBS 2FM 「김구라의 가요광장」

라디오 작가로 방송작가계에 입문, 현재는 글쓰는 프리랜서로 활동중이며 '여자 혼자 떠나는 여행=女行'이라는 「여행 로드다큐」에 출연 및 제작,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패널로 꾸준히 활동 중이다.

대표저서 : 그 여자의 여행가방(2009), 두근두근 서울산책(2010), 떠나라 외로움도 그리움도 어쩔 수 없다면(2011), 떠난 뒤에 오는 것들(2012)



소중한 일자리, 행복한 일자리

본 정보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구인자료로, 초기에 채용이 완료 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자는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032) 458-7488,74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모집직종	인원	경력조건	학력	업무능력	근무지(주소)	임금액
신광산업㈜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	2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합판제조 생산관리(사무직), 자재관리, 상여금 600%, 09시~18시(주 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9-2 107B-3L	월급 130만원 (급여 협의)
서울센트랄상사	경리사무원	1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의료업체 경리, 더존사용가능자, 사무실비품구매, 전화응대 08시30분~18시(주 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05-1 롯데마트 간석점	월급 110만원
청원싸인텍	경리사무원	1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전자제품유통업체 경리사무 경력자 우대, 컴퓨터활용우수자 09시~18시(주5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40-4 남광센트릭스 713	월급 120만원 (급여협의)
다이어린이집	보육교사원	2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어린이집 유아 지도, 보육교사, 보육교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09시~18시(주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08	월급 100만원
사미노인복지센터	재가요양보호사	10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재가요양 요양보호업무 요양보호사 자격증 1급소지자 09시~18시(토요격주휴무)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3동 737-7	시급 6,000원
㈜현대티앤알	웹디자인어	1명	경력 1년이상	학력무관	홈페이지 제작 및 쇼핑몰 홍보 웹디자인어 경력자, 09시~19시(주 5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심정1동 557-569	연 1,800만원 (급여 협의)
㈜은성프레임	제품디자이너	1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제품 디자인 업무 및 영업지원사무업무 08시30분~18시(주 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13-2 33B-3L	연 2,000만원 (급여협의)
㈜천광스틸	지게차운전원	1명	경력 3년이상	고졸이상	코일 입·추하 및 기타 원자재 관리를 위한 지게차운전업무 09시~18시(주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78	연 2,600만원
농가식품	배송 및 납품운전원	2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관공서, 식당, 학교 온배배송직 배송 후 보조, 11 냉장차운전 06시~18시(주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99-2	월급 140만원
(사)실업극복운동 인천본부	식품 영업원	1명	경력 3년이상	학력무관	도시락 신규 거래처 영업 및 거래처 배송업무 09시~18시(주5일)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332-2	월급 150만원
고려안전시스템	공장경비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한국 하나소 가좌공단 빌딩경비업무 07시(격일근무)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14	월급 132만원
㈜부평중앙지하상가	상가미화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상가화장실전담 청소 및 재활용 분리업무 08시~12시/13시~17시(전일도 가능)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장로 10	월급 55만원
미래석유	주유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주유소 주유업무 주간1명/야간1명 06시~14시/16시~24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1동 728-6	시급 4,580원
동우공영	공항주차장 요금정산원	2명	신입	고졸이상	인천공항주차장 주차요금징수 PC기능자, 교통비 15만원지급 주간 2일/ 야간 2일/ 휴무 2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월급 170만원
롯데슈퍼점단점	계산대수납원(캐셔)	4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대형마트 판매계산 업무시간 근로제 17시~21시(주 2회 휴무)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 2지구 58블럭	시급 5,000원
㈜ToTech	자동차조립원	5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자동차부품 조립업무 상여금 400%지급 주야 2교대 근무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3동 531-1	시급 4,600원
한일기업	프레스수형제조원	3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프레스생산 및 프레스수형 경력자 및 신입, 기숙사제공 09시~18시(주 5일)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 검단산업단지 10-24BL	연 1,800만원 (급여 협의)
풍산특수금속㈜	금속가공 기계조작원	6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스테인리스 압연공, 철합금 슬리팅공 업무 상여800%, 07시~15시(주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324-6	월급 180만원
인천식품	식품 가공생산원	10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닭 도계업체 식품포장업무 08~17(평일)/08~12(토요일)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2-23	시급 5,000원
㈜씨애플러스 (장애인만 채용)	전기 및 전자 부품 조립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케넥터 조립 및 검사 케넥터 조립라인 확 인업무 08시30분~17시30분(주 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2-6	월급 150만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정보에서 연령이 삭제되었습니다.

☞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구인·구직을 돕기 위해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458-7470 ~ 7479, 7488, 7494(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5번출구 50m 전방)



글. 임태형_한길안과병원 진료과장

눈 종양, 가볍거나 그렇지 않거나

사람의 눈은 외모와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하다. 우리의 눈, 안구에 생길 수 있는 신 생물, 종양성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 몇 가지와 악성종양의 감별법에 대해 알아보자.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질환은 익상편 또는 군날개라고 하는 신 생물이다. 코쪽에서 시작해서 까만 눈동자 쪽으로 없던 살이 자라는 경우인데, 흰자위에 붉은 색을 띤 살이 불룩하게 나와 있거나 까만눈동자를 살짝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양성종양의 일종으로 노화 또는 만성적인 자극(바람, 먼지, 햇빛)으로 인해 조직의 변성이 일어나 섬유성 조직이 흰자위에 생기는 것이다. 대부분은 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너무 크게 자라서 반복적인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난시를 유발해 시력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외적으로 보기 싫은 경우에 수술로 자라난 살을 제거할 수 있다.

노인들의 경우 까만자(각막) 주변에 흰색의 띠처럼 보이는 것이 생겨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역시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은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나이가 들면서 각막조직의 노화로 변성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므로 치료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젊은 나이인데도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순간 질환이나 특이한 형태의 고지혈증으로 인해 구리나 지질이 각막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확인해야 한다.

흰자가 부풀어 오른 환자들도 꽤 만나볼 수 있다. 이는 대개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데 비비면 갑자기 생겨서 수분 내지 몇 시간이 지나면 조금 줄어들게 된다. 이는 갑작

스럽게 알레르기 반응이 안구에 나타나 공막을 싸고있는 결막이 붓는 경우로 비비면 비빌수록 심해지므로 발견하면 손을 대지말고 차갑게 찜질을 하거나 알레르기에 대한 치료를 하면 대개 좋아진다.

또 혼한 것이 공막(흰자)에 거뭇거뭇한 점이 생기는 경우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는 말 그대로 점이다. 안구에도 피부처럼 흰자를 싸고 있는 투명한 결막에 멜라닌 세포가 쌓이면서 없던 점이 생기기도 한다. 보기 싫은 경우에는 레이저나 약물을 이용해 간단하게 제거해도 되고 그냥 두어도 문제는 없다. 하지만 처음에 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악성종양의 전 단계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제거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유용하다.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크기가 변하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 또 한 수주, 수개월에 걸쳐 크기가 커지거나 색깔이 균일하지 않고 다양한 경우, 통증이나 불편감을 유발하는 경우, 주변에 혈관이 자라 들어오는 경우, 주변의 여러 부위나 눈꺼풀을 침범하거나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꼭 확인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질환이 아닌지 진단해야 한다.

대부분의 종양성 질환은 시력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악성 변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크기, 색깔 등이 변화하거나 통증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병원에서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마사지집이 어디요?”

중구 차이나타운에 가면 중국인 동상이 두 개 있습니다. 공자상과 왕희지상입니다. 왕희지상은 중국 문화원 앞에 있는데 사진을 찍고 보니 마치 노인께서 마사지집을 찾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지윤_연수구 옥련동



옥수수 다 자랐네요

남구 용현동에 있는 엑슬루타워 아파트입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높게 세워진 아파트가 마치 옥수수 같네요.

정현산_강서구 염정동



앙~ 귀여워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수로 옆에 있는 양종맞은 테이크 아웃 커피차입니다. 마치 만화영화에 등장할 것 같은 예쁜 분홍색 차입니다.

우재혁_연수구 연수2동



고수의 사진 찍는 자세

서해5도 청소년 교류활동으로 웅진군 소야도로 2박3일 캠프를 갔어요. 멤버 한 명이 갈바닥에 엎드려 사진을 찍고 있네요. 멋진 사진을 위해서라면 이런 수고쯤은 감수해야 겠죠?

조효순_부평구 삼산동



차이나 스타일

중국 어느 도시에 있는 저택의 벽처럼 보이지 않나요. 사실은 중구 북성동사무소입니다. 아마 중국에도 없는 '차이나스타일' 동사무소일 것입니다.

김현우_동구 송현1동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칭찬하거나 알고 싶은 주변의 이웃을 사진과 함께 소개(원고지 1매)해 주세요

※ 채택된 분께는 문화상품권(1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보내실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독자마당 담당자 앞

문의 : 440-8305

10월 공연·전시 Calendar

SUN	MON	TUE	WEN	THU	FRI	SAT
	1	2	3	4	5	6
			코믹연극 '경로당 퐁팅사건'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5시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580-1155	황금토끼 트리뷰트밴드<맹물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	인천무형문화재 전승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문화재과 440-4032	김영임 호 대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6시30분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S석 6만6천원 A석 5만5천원 ☎JPS Ent 1644-1702
			뮤지컬 '김종욱 찾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씨리재홀 오후 4시 7시 1만원, 학생 무료 ☎760-3457	황금토끼 이르조파스오케스트라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44	인천무형문화재 전승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시 ☎문화재과 440-4032	
7 인천무형문화재 전승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시 ☎문화재과 440-4032 임오국악상설공연 "얼쑤" 2012광물 공연 미술출국악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광역시 875-4644	8	9 제16회 인천여성문화회관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 초대 ☎인천여성문화회관오케스트라 518-3827	10 남진우의 만만한 재즈콘서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 ☎아라기획 563-9968 마임열전 부평문화사랑방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씨리재홀 오후 7시 / 3천원 ☎505-5995	11 인천시립합창단 제132회 정기연주회 <한국의 훈I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 ☎인천시립합창단 1588-2341 프렐류드 재즈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 전석 5만원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875-4655	12 황금토끼 상곡달콤 음악여행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성공개회 기원 제3회 명인명무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씨리재홀 오후 3시 / 무료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875-4655	13 패티김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30분 VIP석 11만원 R석 8만8천원 S석 6만6천원 A석 5만5천원 ☎(주)피아트 1588-6306 2012 인천안무가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초대 ☎인천안무가협회 438-2004 이원국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5시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500-2000
14 패티김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VIP석 11만원, R석 8만8천원, S석 6만6천원, A석 5만5천원 ☎(주)피아트 1588-6306 제19회 인천클라리넷 앙상블 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전석 7천원 ☎인천클라리넷앙상블 424-7117	15 박복임 경기민요 발표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씨리재홀 오후 5시 / 무료 ☎010-5322-6478	16 제18회 인천남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인천남구청 880-4297 가족 마당극 '들썩들썩'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3천원 ☎507-5996 발레동화무용극 신데렐라 서구문화회관 오후 10시 10분, 11시 30분 / 2만원 ☎580-1155a	17 제15회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예술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 무료 ☎인천복지시설협회 881-5301 커피콘서트8 <박종훈의 Piano Paradiso>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가족 마당극 '들썩들썩'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3천원 ☎505-5995	18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 오후 3시 8시 / 1만 5천원, 학생 8천원 ☎453-5710 발레동화무용극 신데렐라 서구문화회관 오후 2시 5시 / 2만원 ☎580-1155	19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21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시립교향악단 1588-2341 관객참여형 감성치유프로젝트 '당신은 지금 플랫폼에 들어오셨군요'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 오후 7시 30분 / 무료 ☎출주는 여자들 760-1005 제8회 노인인권극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초대 ☎노인정책과 426-8792 KAW SAY'인디스 민속음악여행,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씨리재홀 오후 4시 / 6천원, 학생 무료 ☎760-3457 관객참여형 감성치유프로젝트 '당신은 지금 플랫폼에 들어오셨군요'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 오후 4시 / 무료 ☎출주는 여자들 760-1005	20 인천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인천남성합창단 330-1906 제3회 인천뮤지컬라이 플라탕앙상블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뮤지컬라이플라탕앙상블 017-204-6431 KAW SAY'인디스 민속음악여행,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씨리재홀 오후 4시 / 6천원, 학생 무료 ☎760-3457 관객참여형 감성치유프로젝트 '당신은 지금 플랫폼에 들어오셨군요'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 오후 4시 / 무료 ☎출주는 여자들 760-1005
21 임마누엘 합창단 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 초대 ☎임마누엘합창단 761-2774 관객참여형 감성치유프로젝트 '당신은 지금 플랫폼에 들어오셨군요'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장 오후 4시 / 무료 ☎출주는 여자들 760-1005	22 2012 뮤지컬 헬로 코코몽 부평아트센터 해누리 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 R석 3만5천원 S석 3만원 ☎500-2000	23 ASHIRA 창단연주회 'Song from the beginning'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ASHIRA 010-4254-9705 연극 '불청객'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8시 / 3천원 ☎505-5995 연극 '불청객'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8시 / 3천원 ☎505-5995	24 오색천란 마술쇼<매직 팔레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 전석 1만5천 ☎한국예술경영협회 811-0550 연극 '불청객'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8시 / 3천원 ☎505-5995 연극 '불청객'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8시 / 3천원 ☎505-5995	25 오색천란 마술쇼<매직 팔레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 전석 1만5천 ☎한국예술경영협회 811-0550 연극 '불청객'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8시 / 3천원 ☎505-5995 연극 '불청객'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8시 / 3천원 ☎505-5995	26 2012 이문세 붉은노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R석 11만원, S석 9만9천원, A석 8만8천원 ☎(주)하늘이엔티 322-2121 클래식 콘서트 '이사오 사사키 휴(休) 콘서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R석 3만원 S석 2만 5천원, 학생 1만원 ☎500-2000 교육가족을 위한 '여헬스케치와 함께 떠나는 가을여행,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씨리재홀 오후 4시 / 무료 ☎760-3457 연극 '불청객'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8시 7시 / 3천원 ☎505-5995	27 2012 이문세 붉은노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R석 11만원, S석 9만9천원, A석 8만8천원 ☎(주)하늘이엔티 322-2121 뮤지컬 피터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5천원 ☎극단솔이 02-868-6748 교육가족을 위한 '여헬스케치와 함께 떠나는 가을여행,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씨리재홀 오후 4시 / 무료 ☎760-3457
28 러시아 국립 레드스타 레드아미 코러스 & 댄스앙상블 내한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뮤지컬 피터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시, 3시 / 전석 2만5천원 ☎극단솔이 02-868-6748 연극 '불청객'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4시 / 3천원 ☎505-5995	29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시립교향악단 1588-2341 2012 뮤지컬 헬로 코코몽 부평아트센터 해누리 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 R석 3만5천원 S석 3만원 ☎500-2000	30 ASHIRA 창단연주회 'Song from the beginning'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ASHIRA 010-4254-9705 연극 '라이어 1탄'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전석 2만 5천원 ☎500-2000, 1566-9519 '빈소년합창단 내한공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씨리재홀 오후 7시 / 1만원, 학생 무료 ☎760-3457	31 제10회 남동구문화예술회 무용 정기공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남동구문화예술회 422-0285 연극 (라이어 1탄)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전석 2만 5천원 ☎500-2000, 1566-9519			

러시아 국립 레드스타 레드아미 코러스&댄스앙상블 내한공연



러시아 국립 레드스타 레드아미 코러스&댄스앙상블은 구소련 시절인 1977년에 음악을 전공한 현역 군인들로 구성됐다. 지난 26년 동안 레드아미 코러스와 댄스 앙상블은 러시아 영토를 횡단하면서 공연 했으며, 프랑스, 스위스, 영국, 홍콩, 캐나다, 중국 등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으며 각국의 나라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됐다. 독특하고 수준 높은 구성의 오케스트라와 혼성합창단, 러시아 공훈 예술가들로 선별된 솔리스트, 레드아미의 자랑인 열정적인 발레로 이루어진 앙상블은

200여 곡의 다양한 레퍼토리로 한국 관객들에게 강렬한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일시 10월 28일(일) 오후 5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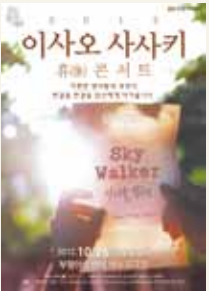


이원국 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전 국립 발레단 수석 무용수로 남성발레의 교과서라 불리며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이원국이 선사하는 '이원국 발레단'과 함께하는 발레 갈라콘서트다. '이원국발레단'은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 키로프발레단과 루마니아발레단 등 국내외 최고의 발레단에서 20여 년간 최정상급의 자리를 지켜 온 대한민국 최고의 발레리노 이원국 단장이 2004년에 창단한 순수 예술단체다.

일시 10월 13일(토) 저녁 5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문의 500-2000

2012 이사오 사사키 콘서트 사랑을 찾아서... Sky Walker



클래식, 국악 등을 접목시키며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음악을 들려줬던 이사오 사사키가 올해에는 본연의 모습으로 단독 콘서트를 펼친다. '사랑을 찾아서... Sky Walker'라는 주제로 감성하는 이사오 사사키의 이번 콘서트에서는 추억 속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아 떠나는 듯한 로맨틱한 감성을 선사할 것이다.

<이사오 사사키 휴(休) 콘서트>
일시 10월 26일(금) 오후 8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R석3만원, S석 2만 5천원, 학생석 1만원
문의 500-2000

10월의

- 01월~04일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기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01월~04일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며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01월~04일 2012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01월~04일 가천의대출판작품전시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04월~10월 전운영 개인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 06월~11월 2012 인천아트페어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12월~18일 2012 인천-하와이 국제미술교류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12월~18일 제7회 인천-상해 수채화 국제교류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12월~18일 목우서각협회 협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커피콘서트Ⅷ 박종훈의 Piano Paradiso



2000년 이탈리아 산레모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 후, 클래식에 국한시키지 않고 재즈, 뉴에이지 등 장르를 넘나드는 멀티플 플레이어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종훈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커피콘서트를 찾는다. 뉴에이지 첼리스트 월하첼로, 실력파 반도네온 연주자 진선과 함께 클래식의 고전인 베토벤부터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 작곡가이자 연출자인 콜 포터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장르의 사랑 노래를 화려한 연주와 담백한 입담으로 선사한다.

일시 10월 17일(수)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22회 정기연주회
Maestro Gum&Virtuoso series IV
화려한 기교와 실력을 겸비한 솔리스트와 교감하는 '금난새와 함께하는 비르투오지 시리즈'의 마지막 무대는 '영혼을 노래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일리아 그린골츠가 함께 한다. 일리아 그린골츠는 1988년 프렐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1위를 차지하며 파가니니 카프리스 특별상까지 거머쥔 바이올리니스트다.

일시 10월 19(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시립합창단 제132회 정기연주회 KOREAN SPIRIT (한국의 훈) II



오는 11월 일본 고베시 초청교향연주를 앞두고 인천시립합창단이 <한국의 훈> 두 번째 무대를 연다. 이번 연주에서는 한국합창을 이끌어 갈 차세대 작곡가들이 공동으로 작업한 옴니버스 형태의 합창 창작곡 '인천 MASS II'를 최초로 들려준다.

일시 10월 11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전석 1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 19일~25일 인천세계도시 미술초청 국제교류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19일~25일 김영미 첫 번째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홀전시실
- 19일~25일 2012 휴과 사람들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19일~25일 2011 인천광역시박물관축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23일~31일 W5-여자를 말하다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 26일~31일 제29회 인천수석인 총연합전시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26일~31일 기획전 "날개" 문학 속의 인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26일~31일 인천서예가협회 회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1 북 콘서트 한비아 편 2 시낭송콘서트

이 가을... 음악과 책을 함께 즐긴다

독서의 계절 가을. 하지만, 정작 내 손에 쥐고 읽은 책은 몇 권이나 될까?
책 읽기가 쉽지 않다면 가까운 북 콘서트를 찾아보자. 감미로운 음악과 저자와의 만남,
다양한 퍼포먼스가 함께하는 북 콘서트를 즐기다보면 나도 모르게 문학의 세계에 빠져든다.

글. 김윤경_본지 편집위원

초등학생들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손에 책 한 권씩 들고 기대감에 찬 얼굴로 무대를 응시한다. 감미롭게 울리는 재즈공연을 즐기는 듯 눈을 감는 모습도 보이고,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은 신기한 듯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무대 곳곳을 훑는다.

드디어 등장한 서경덕 교수. 환호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온다. 지난 9월 15일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북 콘서트 현장이다. 관객들은 유명작가와 이슈가 되는 책, 저명인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그들의 인생과 작품세계를 공감한다. 시민들 스스로가 참여해 함께 느끼며 즐길 수 있는 공연인 '북 콘서트'는 이제 하나의 독서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유명작가 초청 북콘서트 매회 성황

우리는 '책 읽는 도시 인천'을 위해 지난해부터 초청된 저자와 북 전문가의 대담, 그리고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토크 콘서트인 '북 콘서트'를 진행해왔다.

지난 2011년 8월 31일 수봉 인공폭포공원 광장에서 강은교, 도종환 시인과 함께 시작된 북 콘서트는 같은 해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작가 한비아, 뮤지션 김태원, 시골의사 박경철의 릴레이 북 콘서트로 이어졌다. 이 기간에 열린 북 콘서트는 매회 5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해 독서문화에 대한 갈증을 드러

내기도 했다. 또 연말에는 북 콘서트 송년행사로 '자기경영과 미래준비'의 저서 공병호 박사와 '엄마를 부탁해'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신경숙 작가를 초청해 자기성찰과 독서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지난해 관객들이 보여준 북 콘서트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 신세계백화점에서 만화가 강풀과 함께 진행됐던 북 콘서트는 마임과 연극공연이 어우러져 다양한 공연문화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시민들의 평을 받았다.

또, 8월 30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북콘서트'는 민간에서 열정을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자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기획하고 참여해 엄청난 폭우 속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시청앞 미래광장에서는 정호승 시인과 가수 안치환이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시낭송콘서트가 열려 무더운 여름밤을 잊게 해주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도 북 콘서트로 전파

특히 북 콘서트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는 1998년 미국 시애틀 공공도서관의 Washington Center for the Book 에서 '만약 온

시애틀이 같은 책을 읽는다면...'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시민 독서운동으로, 우리시에서는 부평구도서관과 미추홀도서관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14일, 부평구에서는 '한 도시 한 책 읽기'로 선정된 '거북이는 왜 달리기 경주를 했을까'의 대표저자 박승찬 교수, 김정집 교수와 함께 북 콘서트를 진행했다. 인문학도서라 무겁게 느껴지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콘서트와 샌드아트 등의 퍼포먼스공연과 펼쳐져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호응이 높았다.

우리는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북 콘서트로 많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오는 11월 1일 신세계백화점 5층 문화홀에서 미추홀도서관이 '한 도시 한 책 읽기'로 선정한 '엄마의 마흔번째 생일' 작가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를 진행한다. 또 연말까지도 다양한 주제의 북 콘서트를 진행한다.

단편적인 인터넷지식에 익숙해져가는 현대인이 점차 책과 멀어져가는 현실을 북 콘서트는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루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 인천의 문인과 인천의 문화가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해 인천의 모든 문화인이 그 느낌과 여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을...책 한 권에 마음을 싣고, 책이 주는 한가로움을 사치스럽게 누리보자. 그 안에서 느끼는 모든 것이 여유로움이다.

북 콘서트 '150일간의 책 하모니'
일시 11월 1일 오후 6시 30분~
장소 신세계백화점 5층 문화홀



시월, 축제로 通하다

두드리고 놀고 즐기며 通하다

부평풍물대축제

10월 5일(금)~7일(일)

부평대로, 부평일대

- 길놀이(부평풍물단, 거리공연 등)
- 무대공연(한울소리 등)
- 전국 국악 및 학생풍물 경연대회
- 각종 전시체험 행사 등

문의 : 부평구축제위원회 032-509-7516
www.bpf.or.kr

천년의 기다림, 새로운 시작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10월 6일(토)~14일(일)

강화전등사 일원

- 가을음악회(인천시립무용단 외)
- 전등사 역대조사 다례제
- 현대도자기전, 연꽃 사진전 등
- 풍류한마당

문의 : 032-937-0125
www.samrangseong.org

밤바다에 별이 쏟아진다

월미관광특구 불꽃축제

10월 6일(토)~7일(일)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원

- 불꽃놀이(연화연출쇼) / 루미나리에
- 퓨전 빅 콘서트(라티노스, 루비, K브라스)
- 중국기예단, 비보이 벨리댄스, 7080 콘서트 등
- 요술풍선 만들기, 비누방울 만들기 등 체험행사

문의 : 인천중구문화원 032-761-2778

꽃게는 인천 스타일

인천명품 꽃게 한마당 축제

10월 13일(토)~14일(일)

월미문화의거리(월미도)

- 수산물 특설장터, 꽃게 특화제품 판매
- 꽃게 낚시터 개장, 꽃게 요리 만들기
- 꽃게댄스 경연대회
- 인천 꽃게 가요제 등

문의 : 032-220-2211

인천의 안경을 비추다

인천도호부대제

10월 6일(토)

인천도호부청사

- 판굿, 대취타공연, 퓨전국악
- 대제봉행, 음복례
- 전통국악공연, 민속놀이 등

문의 : 인천예총 032-866-2019

진한 비린 향에 끌린다

강화도 새우젓축제

10월 12일(금)~15일(월)

강화도 내가 정포항

- 새우젓 가요제
- 새우젓 경매 및 수산물 시식회
- 갯벌장어 잡기대회, 새우젓 나눠주기 등

문의 : 새우젓축제위원회 032-932-9337

소래야 놀자

소래포구 축제

10월 12일(금)~14일(일)

소래포구 일원

- 전통공연(갯가노래, 서해안주맷소리, 은울탈춤 등)
- 눈가리고 장어잡기체험, 대하·전어잡기 체험 등
- 망둥어 낚시체험 및 대회

문의 : 032-453-2142 www.soraefestival.net

생생한 바다 먹거리 풍성

연안부두 축제

10월 20일(토)~21일(일)

인천종합어시장 앞 특설무대

- 서해안풍어제
- 시민가요제 및 인천대학 가요제
- 바지락 까기 등 수산물관련 체험 및 판매

문의 : 중구청 문화예술팀 032-760-7130



토크하우스를 아시나요?

글. 서혜란_ 인천국제교류센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은 외부인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까요?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은 최근 1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고, 그 중심에는 항상 ‘국제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지역에 사는 누군가를 만나서 인천에 산다고 이야기하면 “아, 인천은 참 국제화된 도시같은 느낌이 들어요”라는 말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제화’란 무엇일까요? 이번 기회에 매월 천 여명의 시민이 인천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천국제교류센터에서 운영하는 토크하우스는 인천시민들이 외국어를 학습하고, 외국인과 자유롭게 교류하는 곳입니다. 특히, 영어·중국어·일본어는 물론 인천에서 쉽게 배울 수 없는 아랍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몽골어, 파갈로그어 등 총 9개 언어 월 평균 70개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인천에 이런 곳이 있었어?’하고 놀라지만 사실 토크하우스는 2007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토크하우스 프로그램은 영어·중국어·일본어 클럽 같은 경우에는 리더가 중심이 되어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외국어를 스테디하고, 1시간은 원어민이 수업에 참여해 프리토킹, 토론 등을 합니다. 나머지 언어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해당국가 출신의 다문화 이주여성인 왕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토크하우스는 인천시민의 국제화익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생활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글로벌테마강좌’도 개최합니다. 군·구 주민들을 위해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테마강좌로 진행하고 있는 데 해당국가 출신의 다문화 이주여성으로부터 다

양한 생활문화도 배우고, 전통의상, 음식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외국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도 많이 열립니다. 지난 9월 8일에는 내·외국인 40명이 전등사에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는데 한국의 색다른 문화를 내·외국인 함께 체험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요즘들어 토크하우스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는 “우리 동네는 토크하우스가 안생기나요?”입니다. 다양한 지역의 시민들의 수요가 너무 높아서 토크하우스는 구월동에 있는 센터 토크하우스 뿐만 아니라 군·구로 토크하우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9월 계양토크하우스 오픈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청라 토크하우스, 올해 6월에는 영종토크하우스를 오픈했으며, 앞으로 송도, 중구에도 토크하우스를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가슴에 새긴 한 구절

품위는 자기존재에 대한 당당함, 자기일에 대한 자부심, 통제력, 타인에 대한 정직함, 배려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비야: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급차, 비싼옷, 비싼 장신구를 걸치면 품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급차는 몇 년이 지나면 결국 중고차가 될 것이고, 비싼 옷은 다음 시즌이 되면 철지난 옷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품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기 존재에 대한 당당함을 지닌 사람은 어디에서도 빛이 납니다. 또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은 주위에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품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愛

꽃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가을바람에 이끌리어 엄마는 아이를 들쳐업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휴대폰에 가을을 담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뭘 찍는지 궁금합니다.

포대기에 쌓인 아이가 살며시 눈을 뜹니다.

사방에 우주(Cosmos)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얀 우주, 빨간 우주, 노란 우주...

(인천대공원에서)

글 · 사진 유동현_본지편집장